

우리가 그곳에 거의 다 왔다!

변명의 여지 없이, 이 책의 의도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거의 가까이 와 있음을 지적하는 풍부한 성경의 증거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이다.
 세상의 종말은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며, 이 때에 인류의 최고 지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시작된 심판의 과정을 완성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곳에 거의 다 왔다!

목차

서문

제 1 장. 영광스런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법

세번째 기간의 계시

성경 해석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한 완전한 계시

제 2 장. 성경은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준다

역사적 시간의 흐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계획 전개

이스라엘, 그리고 1447 B.C. 로부터 A.D.33까지의 해들

교회시대의 시작

성경은 불완전한 교회를 예언하고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문제

성경 전체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교회시대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제 3 장. 말세에 대한 이해를 지연시키신 하나님의 계획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중요한 시간의 연결점들은 의례적인 절기들과 연결된다

중요한 구원의 사건들이 가진 정확성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묘사하는데 성전을 사용하셨다

성전 낙성식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시간적 정보를 준다

제 팔일, 시월 21, 2011

초막절을 보는 또다른 시각

제 4 장.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발견하기 시작한다

교회시대의 종말이 되는 날

제 5 장.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정확한 것인가?

세상이 창조된 후 13,000년째의 해

하루가 천년과 같다

마지막 다섯달

믿기 어려운 더 많은 정보들

속죄로부터 휴거까지: 722,500 일

더 많은 증명들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 과정은 계속된다

제 6 장.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가?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들었으나 비웃는 사람들
 겸손히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자들

서문

변명의 여지 없이, 이 책의 의도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거의 가까이 와 있음을 지적하는 풍부한 성경의 증거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이다. 세상의 종말은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며, 이 때에 인류의 최고 지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시작된 심판의 과정을 완성하실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각자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당신 또한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정보에 대하여 거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보다 더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심판날에 대한 이 모든 말들이 그저 말에 그칠뿐 심각하게 여길 일이 아니기를 몰래 희망하면서 완전한 부정부안에서 사는 편이 훨씬 쉬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절대적인 진실이며 권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는, 성경이 그 두려운 사건에 관하여 가르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우리가 명령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믿는자들에게는 질문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세상에 임박한 심판을 반드시 경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지자 요나는 니스웨에 가서 그 사악한 도시를 40 일 후에 하나님이 멸하실 것임을 경고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요나는 그 무서운 소식을 니스웨에 알리는 것이 즐겁지 않았으나, 결국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훌륭한게도, 니스웨 사람들은 회개하였고,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주시기를 희망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어, 그들의 성을 멸하지 않으셨다.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이 그와 똑같은 상황이다. 그 시간은 40 일이 아닌 사년이 조금 못된다. 니스웨 성 전체가 회개를 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는 전 세계가 회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소식은,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선택하신 거대한 수확의 사람들이 영생을 받아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스도께서 밤의 도적 같이 오실 것이다, 라고 특히 지역 교회 회원들은 아주 흔하게 단정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시간을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알고자 시도하는 일에 아무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반대한다.

이 사람들의 말이 옳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밤의 도적 같이 오실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친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읽는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 다음 4절로부터 6절까지에 걸쳐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찌라

이 구절들은,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그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를 구원받지 못한 자로부터 분리시킬 것임을 깨닫게 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고 가르친다. 두 집단의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과, 구원받은 자들은 최고의 행복과 영광 속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임을 알고 있다.

한 집단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으나, 사실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포함한다. 그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경에, 세상 끝까지 계속되는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관련된 거대한 양의 정보를 드러내셨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자신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 지는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밤의 도적 같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멸망이 홀연히**” 그들에게 닥칠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가능한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과, 여전히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인하여, 성경이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관한 많은 정보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역시 많이 있다. 그런즉, 그들은 말세의 사건들에 관련하여 수없이 많은 세부적인 것들을, 물론 이러한 사건들의 시간표와 더불어 알게 되었다. 아주 가까이 다가온 임박한 세상의 종말을 세상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경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경은 그들을 “**파숫군**” (에스겔 33:2-9)이라 말한다.

이 책은, 희망하건데, 세상이 처한 곤경의 절대적인 심각성을 독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쓰여졌다. 세상의 종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길은 결코 없다. 그러나, 당신 또한 하나님의 훌륭한 구원의 자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계획을 세상에 펼쳐보이시는 가운데 세상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활동을 잠시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그 마지막 기간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인데, 이 때에 두가지 커다란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심판 과정에 대한 완성과,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 책에는 장래의 사건들뿐 아니라, 여러가지 역사적 사건들의 낱자들이 많이 실려 있다. 이러한 낱자에 대한 성경의 증거를 부수적으로 검토해 보기를 원하거나, 이러한 낱자를 확인시켜주는 사건들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들은, 전화나 서신을 통하여 웨밀리 라디오에서 무료 배부하는 책들을 구하여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책들은 모두가 성경에서 나온 정보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추측이나 상상과 같은 그런 종류의 근원에서 비롯된 정보들이 아니다. 그 책들은 다음과 같은 제목의 책들이다.

시간에는 끝이 있다

교회시대의 끝, 그리고 그 이후

곡식과 가라지

성경 공부를 위한 첫째 원칙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아담은 언제?

히브리 왕들의 숫자가 지닌 완벽한 조화

제 1 장. 영광스런 하나님의 말씀

세상이 종말에 아주 가까이 왔다는 두려운 사상을 이해하는데에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성격과 권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일이 요구된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받으려면 순종해야 할 근본적인 원칙들을 세워놓았다. 이러한 원칙들은 누구든지 이 경외스런 사상을 이해하기 원하는 자들의 마음 속에 철저하게 새겨져야만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 쓰여진 원래의 언어는 주로 히브리어와 희랍어로서, 각각의 단어와 각 단어가 지닌 각각의 철자까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이나 혹은 교회 제도가 성경의 원래 쓰여진 언어의 어떤 단어나 문구 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졌다는 생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래의 히브리어와 희랍어로 쓰여진 고대 원고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킹 제임스 번역 성경과 그 시대의 다른 번역에 사용된 원고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다. 성경의 어떠한 교훈을 학습할 때에라도, 심각한 성경 교사는 언제나 번역자가 한 일을 검토하고 만일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 수정을 해야만 한다.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최고의 법률서로서, 모든 인간 각자가 아주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법률서로서 성경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자에게 심판의 형벌이 내릴 것임을 선포한다(로마서 6:23; 야고보서 2:10).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다. 즉, 하나님의 법 안에는, 하나님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대속자가 되시어 영원한 심판이 되는 죄에 대한 댓가로부터 구원을 받기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담당하셨다는 훌륭한 소식이 있다.

성경은 그 자체가 사전이고 주석이다. 각각의 단어, 문장, 개념 등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된 그와 똑같은 단어나 개념이 사용된 용도를 조사함으로써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의 어느 교리에 관한 어떠한 결론도,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서 성경의 다른 모든 진리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기 전에는 인정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 사본을 마련해 주셨다. 그 기록된 법이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법은 또한 인류와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이며 또 복음으로써, 구약과 신약성경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이 “법”이나 “계명” 혹은 “서약” 이나 “복음” 또는 “언약” 이나 “말씀” 이란 말씀을 사용할때는 언제나 성경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단어들 이 동의어들이다.

성경은 두가지 뚜렷한 부분으로 나뉘어서 인류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신 방법은, 성경의 진리가 세가지 부분으로 인류에게 드러나도록 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첫째 부분은 구약이다. 구약은 1447 BC에 기록되기 시작하였고, 그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른 많은 법들과 함께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동시에, 이 계약 혹은 이 법률서 안에, 창조에 관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에 관하여,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관하여, 그리고 역시 인류의 구세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수많은 계명들을 그가 쓰셨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391 BC 까지, 구약을 쓰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을 쓰실 때, 구약에 기록된 것에 포함된 거대한 양의 진리와 정보들이, 인류에게 오직 희미하게 드러나도록 쓰셨다. 게다가, 구약이 기록된 이후 수세기가 지나기까지 인쇄술이 아직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실제 사본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초기에만, 아주 소수의 구약 성경 사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신약으로 불리는 둘째 계약은 A.D.33년 즈음에 하나님에 의하여 쓰여지기 시작하였고, A.D.95년 즈음에 완성되었다. 이 신약은 수많은 진리를 제공하여 구약을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주로, 실제로 그가 구원하시고자 하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심으로써,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신약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도 구약과 같이, 그 안에 세워진 많은 진리들이 교회시대 동안 참 믿는자들에게 숨겨진 채로 남아있도록 쓰여졌다.*

그러므로, 비록 성경이 완성되었고, 거의 2,000년 동안, 계약 혹은 법률서로서 기록되었음에도, 성경 전반에 걸쳐서 흩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수많은 진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헌신적인 신학자들에게 결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신비스러운 혹은 숨겨진 이러한 교리들은, 세상의 역사중 마지막 23년 동안에 일어나게 될 중대한 사건들과 더불어 특히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성격과 시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에 관련된다.

세번째 기간의 계시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종말에 아주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세번째로, 성경에 항상 있어왔던 더 많은 부수적인 진리들을 드러내고 계신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는 항상 비밀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외에 더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같지만, 물론 성경이 확장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새로 더해진 말씀은 전혀 없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즉, 원래 쓰여진 성경의 언어들 은 1,900년 쯤 전에 완성된 그 성경과 정확하게 같은 것이다. 그것이 단지 지금, 예전에는 숨겨져있던 대부분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써, 완전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찌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구절에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고 한 문구는 “내가 새 언약을 마치리라” 고 번역되었어야 한다. 새 언약은 신약 성경을 말한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수많은 새로운 진리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써 그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마치고 계신다. 그 진리들은 항상 성경에 있어왔으나, 오늘날 우리에게 드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성경인 언약을 기록하시는 일을 마치신 것과 같다. 이것은 정확히 다니엘 12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구절과 부합한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찌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성경 해석

세상 전역에 걸친 모든 교회가 각각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사실상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일이다. 이것이 진실이 되는 이유는, 그들이 성경 해석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은 성경의 원래 언어로 된 각각의 단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이 가장 정확할 뿐만 아니라 최고로 중요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사실상 모든 교회, 교리, 신학교 등이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 만든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성경 해석 수단은 완전히 거부되어야 한다. 진정한 성경해석 방법은, 성경이 세상의 이야기로 쓰여진 영적인 책 임을 성경이 가르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쓰여진 이유로, 모든 역사적 사건, 모든 대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절대적인 진실이며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진술들이 또한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그 구절에 대한 영적인 가르침이 연구되고 발견되기 전에는 이해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에서 이러한 해석의 원칙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읽는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 들을 수 있는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극히 본질적인 존재이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읽는다. 그런즉, 성경에 기록된 각각의 단어와 문구들의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원칙은, 성경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경 전체와 동일시 되시는 것과 같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책인즉, 성경 학도는 반드시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우리 마음 속에 진리를 가져오실 수 있다(요한복음 16:13). 성경 학도는, 어떠한 영적인 결론도, 성경이 가르치는 다른 모든 진리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그것을 신중하게 시험해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신 선차적인 원칙은 참 믿는 자들이 성경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주요 수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자기 자신의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자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시는 주된 수단으로 보인다. 이 원칙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예를 들어, 세상에 있는 교회 전체를 통하여 사용된, 사람이 만든,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학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성경의 아주 중요한 수많은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진리는, 교회시대의 종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고 참 믿는자들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시간표와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알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대한 완전한 계시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시대 전반에 걸쳐서 잘 이해되지 못하였던 새로운 많은 진리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그가 의미하시는 세가지 특히 중요한 진리의 영역이 있다. 그 영역들은 다음과 같다. (1)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성격과 시간. (2)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포함하는 말세에 대한 정보들. (3)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가진 성격과 특성.

본 학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성격에 약간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말세의 세부적 정보들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계획이 가진 성격과 특성은 차후에 발간되는 책에 주어질 것이다.

히브리서 8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이 구절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교회시대를 통하여, 성경을 믿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우선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회중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신할 것인지, 혹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단들의 가르침을 신중히 분석해보면, 구원을 구하는 자가 무엇인가 어느정도 공헌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항상 변함없이 보여준다. 이러한 공헌은 물세레나, 대중 앞에서의 신앙고백,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위, 성찬식의 참여, 혹은 특정한 종류의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행위들을 포함할 수 있다. 사실상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그 사람이 태어나기 오래 전에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모든 일이 완성되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위반하는 것이었다.*

히브리서 8장 10절과 11절에서, 위에 인용한 대로, 한번 성경의 완전한 계시가 발생하면, 세상에서 구원에 대한 가르침은 전적으로 성경적인 것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 인류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임이 가르쳐질 것이다(에베소서 2:8-9).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성경에 대하여 극히 적은 지식을 가진 큰무리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 이 경외로운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자를 무료로 신청해 보기를 권한다.

우리는 오늘날 구원받고 있는 셀수 없이 큰 무리의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간단히 윤곽을 잡아보는 시도를 할 것이다.

1. 성경은 참 믿는자들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한다. 하나님께서 라디오와 인터넷과 같은 전세계적인 대중 매체들의 발달을 인도해 오신 것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일을 가능케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2. 하나님의 신비스런 섭리안에서, 성경의 진리를 조금 알거나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깨닫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 a. 그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된 무서운 미래를 향하고 있는 죄인들이다.
 - b. 그들이 듣고 경청하기 시작하게 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이 틀림없고, 그런즉 그들이 그 계명들에 복종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한다.
 - c. 그들은, 심판 날이 아주 가까이 와 있으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
 - d. 그들이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과 또 그렇게 할수 있음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어찌면 그들을 구원하실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게된다.

이것이 현재 세상이 처한 상황으로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전역에 걸쳐서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에 의하여 구원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구원하실 때, 그가 그 사람에게 새로이 부활한 영원한 영혼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에 순종하고자 하는 강하고 끊임없는 욕구를 갖는다. 성경이 강조하는바(요한계시록 7:9-14), 현재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거대한 숫자로 증가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전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성경의 수많은 진리들을 드러내고 계신 사실과 관련된다.

제 2 장. 성경은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준다

성경 전체를 신중하게 학습해봄으로써,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법으로서 줄곧 세워놓으신 법률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온 인류에게 주신 책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잠언서 8장 5절로부터 7절까지를 읽어본다.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릇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이 구절들에서, “판단”으로 번역된 단어는 “법”과 동의어이다. 그런즉, 성경을 학습함으로써, 참으로 믿는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 과정에 관련하여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된다.

그런 이유로, 참 믿는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시간을 가늠할 수 있는 많은 진리들을 포함하여, 역사적 시간표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해석 방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밤의 도적 같이 이를 것이다. 즉시, 그들의 불행은 말할수 없이 복잡하게 얽혀질 것이고, 그 때는 이미 늦은 때가 될 것임은, 이미 세상의 종말이 왔기 때문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더이상의 자비나 은혜, 혹은 구원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부터 6절까지에 다음과 같이 읽는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대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찌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읽는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까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 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현재의 이해로 만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어느날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란 사실은 알고 있으나, 그 마지막 날의 시간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인류가 그것에 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밤의 도적 같이 오실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의 재림은 그들을 멸하시는 것이 목적이 된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역사적 시간표에 관하여 성경에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깨닫게 된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으로부터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많은 주요 사건들의 시간표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세상의 종말의 정확한 시간표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시간이 예상밖의 일이 아닐 것이다.

역사적 시간의 흐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계획 전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인류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가르친다. 복음은 성경 전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주의깊게 학습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전개하는 것이 역사적 시간의 흐름임을 우리가 배운다.

세상의 역사중 처음 9,500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기 위하여 어떠한 종류의 세상적인 기관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시기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의 나라를 대표하는 믿는자들 개개인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아벨, 천국으로 데려감을 당한 에녹, 노아와 그의 가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자들의 이름들이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깊게 학습해보면, 세상이 13,000 년 전쯤에 창조되었던 것을 발견한다. * 성경은 아주 정확해서, 우리가 성경의 달력을 우리의 현대 달력과 조화시켜보면, 창조의 해가 11,013 B.C.였음을 알수 있다.

모든 면으로 볼 때, 지구의 역사상 그 처음 9,500 년 동안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예를 들면, 노아의 시대에, 4990 B.C.에 존재했던 세상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을 때, 오직 여덟명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에게 웨밀리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아담은 언제* 라는 책을 무료로 받아 보기를 권한다. 이책은 성경이 이 정보를 어떻게 마련해 주는지를 보여준다.

이스라엘, 그리고 1447 B.C. 로부터 A.D.33까지의 해들

그러나, 1447 B.C.에,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도록 하시는 그의 수단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셨다. 그 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기 시작하셨다. 그 해가 1447 B.C.였다. 그 이스라엘이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벗어났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700 년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은 2167 B.C.에, 갈대아, 혹은 바벨론의 우르의 시민으로서 태어났다. 2092 B.C.에,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대표하는데 사용하신 땅이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과 함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 2,100 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펼치는 일에 중심역할을 하게 되었다. 사실인즉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후손으로서 인간의 모습을 쓰시게 되었다.

1447 B.C.에, 이스라엘로 불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 이백만명 정도가 되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해가 바로 그 해였다. 그리고 그 후 1,480 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다. 그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법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대표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라를 주시되, 이스라엘 땅으로 역시 불린 가나안 땅을 그들이 살도록 주시고, 성전과 예배를 드리는 회당들을 주셨다. 그가 그들에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율법으로 부르는 법들을 주시고, 그들이 그 법들을 지켜야 했던 것은, 이 법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리켜 주었기 때문이다. 의례적인 율법들은 절기들과 월삭, 제 칠일 안식일들, 번제, 희생제, 등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나안,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 성전, 유다 등과 같은 세상적인 실체물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대표하신다. 그런즉, 이와 똑같은 단어들은 자주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대표하기 위하여 성경에 사용된다. 예를 들어, 교회시대 동안,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대표하였다. 그러므로, 성경은 자주, 이스라엘, 유다, 성전 등과 같은 단어들을, 교회시대의 교회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사용한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율법의 몸으로서, 그 법을, 하나님께서 전 민족을 다스리기 위하여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 그리고 왕들을 임명하는 일에 관련하여 주셨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기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대표하시기 위하여 그 자신이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이 거대한 회중의 회원이 되었다. 이 회원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세워진 또다른 하나의 의례적인 율법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처음의 천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하기에 바로 앞서서 은혜들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준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살이로부터 인도해 내시고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을 때, 또 그들이 기적적으로 홍해를 마른 땅 위로 건넌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40 년간 방황했을 때,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 위로 건넌을 때,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자세한 많은 것을 알려준다. 성경은 그들의 역사상 그 다음에 오는 360 년간의 세월에 관련한 상당한 양의 정보를 주는데, 이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사사들로 불리는 개인들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들을 다스리셨다.

우리가 그 다음에 오는 116 년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받았는데, 그 때에 이스라엘이 지상에서 최고의 영광 속에 들어와, 사울 왕에게 지배를 받고, 그 다음 다윗왕, 그 다음 솔로몬 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포함하고 있었던 하나의 통일된 민족이 두 민족으로 분단된 것에 관한 상당한 양의 정보들 역시 성경에 주어졌다. 솔로몬 왕이 죽자, 열 지파들은 결국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여 이스라엘로 불린 독립국이 되었고, 남은 두 지파들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 유다 나라가 되었다. 성경은 이 왕국들과 그들을 다스렸던 왕들에 관한 수많은 정보를 준다.

성경은 또한 이 민족들의 종말에 관한 상당한 양의 정보를 주고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열지파들은 709 BC 에 앗수르인에 의하여 정복당하였다. 그 다음 587 BC 에, 유다가 바벨론 민족에 의하여 정복당하여,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이 건설한 웅대한 성전이 파괴되었다.

그러나, 587 B.C. 예루살렘이 멸망된 후에 이어서, 12 지파들이 경험한 자세한 내용이 훨씬 더 제한되었다. 우리는 539 BC 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던 유다의 약 40,000 명 가량의 살아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을 배운다. 515 BC.에, 성전 재건축에 대한 노력이 완성된 몇가지 내용들에 대하여 배운다. 우리는, 주로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라는 제목의 성경 안에 있는 책들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의 몇가지 경험들에 대하여 배운다.

그러나 그 다음, 391 B.C.에서 8 B.C.까지, 거의 400 년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 땅과 그 주민들, 그리고 그 문제 관하여,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느 다른 민족에 대하여 성경은 완전히 침묵한다.

슬프게도,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전체적인 기간 동안,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만이 사실상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 배도, 그리고 반역에 관련한 진술들로 가득차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시는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오셨을 때에도, 그들은 반역했고, 그분을 그들의 메시아로 간주하지 않으려 했다. 사실인즉, 그들은 결국 그분을 죽이고 말았다(사도행전 2:22-23).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낳은 훌륭한 열매이심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유다 지파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어 인간의 모습을 쓰시게 되셨다.

8 B.C. 에, 또다시 성경은 유대 민족에 대한 수많은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기 시작했다. 그 해에, 세례 요한의 탄생이 알려졌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시며, 그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셨음을 세상에 선포했던 이가 곧 요한이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오직, 세상에 있는 어떤 자라도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7 B.C.,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AD 65 까지,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세상의 역사상 가장 경외로운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가 바로 이 기간 동안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의 모습을 쓰시고 태어나셨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삼년 반 동안 선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A.D.33 에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그는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 해 A.D.33 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중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대표했던 1,480 년의 기간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교회시대의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 며칠 후, 그로부터 1,955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야 했던 거대하고 거룩한 기관이 시작하게 되었다.

A.D.33 년 오순절에, 약 3,000 명이 구원을 받았다(사도행전 2). 그 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수많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온 자들이었다. 이 커다란 사건이 교회시대의 시작을 표시하였다. 우리가 아는바, 터어키, 그리스,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로 선교사들이 보내어진 것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주어진 것은 교회시대의 시작 가운데 이 부분 동안이었다. 교회시대는 거룩한 계획으로써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졌으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 세계 안으로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셨다. 유대인의 회당, 예루살렘성, 이스라엘 민족, 혹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결코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대표하지 않게 되었다. 온 세상에 걸쳐서 형성된 지역 회중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대표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경은 아주 흔히, 지역 회중들을, “예루살렘” “성전” “시온” “이스라엘” “유다” “유대” 등으로 부른다.

결국 온 세상에 세워진 교회들로 구성된 이 거룩한 기관은 하나님에 의하여 신중하게 만들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법률서인 성경 안에 장로들과 집사들을 위임하는 일을 지도하는 엄격한 규칙들을 정해놓으셨다(디모데전서 3). 여자는 회중 안에서 가르치거나 권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되어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했던 구약의 의례적인 법들은 더이상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그 대신, 복음의 본질성을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두가지 새로운 의례법이 소개되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그것이다. 교회 회원에서 추방당하는 것에 관련한 법이 세워졌다(고린도전서 5). 일요일이 일요 안식일로서 지정되었고, 이 날은 모든 종류의 영적인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했다. 세상 전역에 걸쳐서 세워진 지역 회중은 성경에 세워진 법들로 다스려져야 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회중에게는 온 세상에 걸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하고 거대한 사역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가 언급했듯이, 심지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도, 선교사들이 이웃 나라들로 보내어졌던 것이다(사도행전 13).

약 A.D.95 년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는 일을 완성하셨고, 세상에서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실제적인 교회의 발달 과정을 묘사하는 정보는 더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시대가 시작하기 오래전에, 교회시대가 영적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를 예언하셨다.

어떤 사람은, A.D.33 년 오순절날 약 3,000 명이 하루에 구원받았을 때(사도행전 2), 그것은 교회시대의 시작에 있어 길조가 되는 것으로써, 교회시대의 발전이 눈에 띄게 성공적인 이야기가 될 것으로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음을 예언하였다. 우리는 슬프게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마치시기 전에(A.D.95), 이미 이러한 것들이, 교회시대가 아주 크게 성공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를 더하는 것이었음을 성경으로부터 배운다.

성경은 불완전한 교회를 예언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 장과 요한계시록 3 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형적인 일곱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이러한 조건들은 이 교회들이 형성된 후 약 30 년 동안 존재했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그 첫 사랑을 잃었다고 한다.(요한계시록 2:4-5).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라(요한복음 14:21-2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그들의 촛대를 옮기시겠노라고 위협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더이상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이상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않게 되었다.

갈라디아서 1 장 2 절로부터 9 절까지에서, 성경은 이미,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성경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고 보도한다. 요한계시록 2 장 13 절에서, 성경은 버가모 교회가 이미 어느 정도 사단이 다스리는 교회였다고 보도한다. 이 구절은 사단의 “자리”에 대한 참조를 마련해준다. 성경에서, “자리”라는 단어는 이런 종류의 문맥 안에서, 다스리거나 지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3 장 1 절에서 4 절까지에 걸쳐서, 성경은 사데 교회가, 비록 소수의 참 믿는자들이 그안에 남아있기는 했으나, 이미 죽은 교회였다고 보도한다.

마태복음 13 장 24 절로부터 30 절까지에서, 성경은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기록하고 있다. 곡식은 교회 안에 있는 참 믿는자들을 대표하였다. 가라지는, 오직 교회시대의 종말에 와서만 하나님께서 곡식을 가라지로부터 구별하시는 수단을 주실 정도로, 참 믿는자로서의 증거를 모두 갖추고 있는, 믿지 않는자들을 대표하였다. 이것은, 교회시대를 통하여 가라지가 있을 것이며, 그들은 여전히 사단의 노예들로서, 교회안에서 아주 활동적인 자들이 될 것임을 의미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하여, 비록 공식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들의 지배자가 되셨으나, 사단이 교회 안을 다스릴 수 있었다.

이미 이사야 9 장 1 절로부터 4 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시대가 크게 성공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임을 예언하셨다. 그 말씀을 읽어본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도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멘 멩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한글개역 성경의 오역을 수정하였음

이 구절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저편의 땅에 비추이는 빛을 “이방의 갈릴리” (마태복음 4:15-16 을 보라)로 말씀하신다. 즉,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음의 빛 아래 들어오도록 되어있었다. 물론, 그 빛은 주 예수님으로서, 그가 세상의 빛이 되신다(요한복음 1:7-10).

복음의 빛이 세상 전체에 비추어져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계획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가 세상에 일어나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이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이다(이사야 9:2). 이사야 9 장 3 절에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라고 선포하듯이, 그 빛은, 그리스도 안에서 외관상 참 믿는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온세상에 걸쳐서 존재하게 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온 세상에 걸쳐서 발전될 하나님의 나라의 외형적 크기가 위대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똑같은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추수의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신다(한글개역성경에서는 그 반대로 오역되었음). 추수의 즐거움이란 한 사람이 영생을 얻어서 참 믿는자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다(누가복음 15:10). 만일 추수의 즐거움이 모자란다면, 참 믿는자들의 추수가 아주 적음을 의미할 수 있을뿐이다. 사실인즉, 우리가 읽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런 슬픈 예언은, 성경의 여러곳에서 예언되어 있다.

우리가 이미 주목해 본 바 성경의 모든 참조들에 더하여, 이사야 5 장에서, 하나님께서 교회시대를 가리켜, 정성드려 애정을 가지고 심으셨던 포도원으로 그리고 있음을 읽는다. 그러나 이 포도원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것은 들포도를 맺었다. 영적으로 들포도는, 성경의 복음을 주의깊게 따르는 대신 자기 자신의 복음을 만드는 사람들로 확인된다. 후에 본 학습에서, 이러한 사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결국 포도원을 파괴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등의 여러 장들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계속되는 사악함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강렬한 진노를 지적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참으로 결국은 그들이 멸망당하였다. 이스라엘은 709 B.C.에 앗수르에 의하여, 그리고 유다는 587 B.C.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였다.

그들의 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대표하였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교회시대의 전반에 걸쳐서는 모든 지역교회들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대표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구약 책들을 학습해보면, 사실상 하나님께서 교회시대에 대하여 예견하신 것을 읽게되는데, 특별히 교회시대의 종말에 대하여 더 많이 읽게된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교회시대를 통하여 온 세상에 걸쳐서 교회들이 세워져야 했음을 가르치고 계시며, 그것은 교회시대가 크게 성공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교회 전체로 볼 때에는 아주 적은 부분으로서 남은자들만이 사실상 구원을 받았고, 즉, 그들만이 사실상 참 믿는자들이었다.

이와 똑같은 사상이 로마서 9 장 27 절에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10 장 22 절과 23 절로부터 인용하신 것이다.

로마서 9:27: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못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찌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사야 10:22-23: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찌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궤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문제

교회시대에 있어서 영적인 성공이 결핍 된 아주 큰 이유중 하나는, 사단의 문제였다. 십자가에서, 사단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었다. 그는 천국에서 추방당하였고(요한계시록 12:7-11), 결박당하여 교회시대의 완전한 기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상징적으로 1,000 년의 기간으로 묘사되었다(요한계시록 20:1-3). 그 1,000 년은 “완전성” 을 의미하는 상징성 혹은 영적인 숫자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가 결박되었던 실재상의 기간은 1,955 년(A.D.33 - 1988)이었다.

사단을 결박하는 것은, 시초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가 어떤 식으로도 방해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사단이 결박되었던 사실은 우는 사자와 같이 그가 두루 찾아 다니는 것을 미리 배제하지는 않았다(베드로전서 5:8). 즉, 교회시대가 전적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과는 반면에, 사단에 의하여 영적인 효력에 있어서는 크게 방해를 받게 될 것이었다. 그가

교회 안에 가라지 혹은 풀들을 심음으로써 교회의 효력을 방해할 것이다(마태복음 13:24-30). 즉, “광명의 천사”로 운영하는 사단이 그의 일꾼들을 “의의 일꾼들”로서 모든 지역 회중 안에 들여올 것이다(고린도후서 11:13-15).

요한계시록 6 장 4 절에서, 사단은 성경인 영의 검을 가지고 붉은 말을 탄 자로 묘사되는데, 그것으로써 그가 땅의 평화를 빼앗을 것이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가 거짓 가르침에 권위를 주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을 사용할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의 참조들을 신중하게 조화시켜보면, 참으로, 겉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교회들 마다 큰 숫자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보도하는 가운데 교회시대가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상으로는, 교회 안에서 신앙고백을 하는 성도 전체의 회원 가운데 오직 소수의 남은자들만이 참으로 믿는자들이 되었다는 뜻이다.

교회시대 동안 세상에 끼친 가장 위대한 축복은 온 세상에 걸쳐서 수억개의 성경들이 인쇄되고 배포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교회시대 동안 참으로 믿는자가 된 사람들의 수는 아주 적더라도, 복음의 빛이 되는 성경이 세상에 두루 보내어졌다.

그런즉, 마태복음 7 장 21 절에서 23 절까지에 있는 불길한 예언은, 세상의 구원받지 못한 자들 위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날, 날카로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슬프게도, 그것은, 휴거가 일어날 때, 즉, 참으로 믿는자들이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세상의 어느 곳이라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포함한다. 다음의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교회시대 전체를 뒤돌아 볼 수 있는 최상의 유리한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교회시대의 성공이 결여된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적 진술이 가진 현실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다. A.D.33 년 오순절날 약 3,000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교회시대가 크게 번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확인했듯이, 심지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세워진 교회 안에서도 이미 타락한 증거가 보였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이미 그 교회들 안에서 가라지를 심음으로써 수많은 교회 안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다. 요한계시록 2 장과 3 장에 나오는 교회들은 신약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우리가 교회 역사를 조사해보면, 성경에 크게 신실했던 시기에 대하여 전혀 배울 수 없다. 교회 역사는 성경에 신실치 못했던 사건들로 가득차 있다. 성경에 대하여 신실치 못했던 것으로 가장 높은 수위를 장식한 때는, 아마도 종교개혁 시기로서, 그것은 유럽에서 약 사 오백년 전에 발생했던 일이다. 역사상 그 시기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우세한 교회였다. 그것이 성경의 법에 아주 극도로 반칙했으므로,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과 같은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 개신교회들의 근원이 되었다. 이와 같은 많은 수의 개신교회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가능한한 신실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서,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누구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고 이 행위가 구원을 가져온다는, 이른바 사람이 만든 구원계획을 가르치게 되었다. 과거에 있었던 위대한 부흥을 눈여겨 보면, 그들 중 거의 대부분이 그런 종류의 복음에 기초된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슬프게도, 그것은 성경의 복음이 아니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시대 동안 어느정도의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성경 전체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발전되어온 많은 개신교 교단들 가운데, 성경의 교리의 많은 면에 관련하여 커다란 불일치가 있었던 바로 그 사실이, 각각의 교단이, 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들을 성경으로부터 채택하여, 이러한 구절들로부터 그들의 신경과 신앙고백들을 발전시키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각각의 교단은 그들이 선택한 구절들이 무오하고 오류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그런즉, 그들의 교회 신경이 된 신학적 결론들과, 그들이 선택한 구절들에 대한 이해를 조화시킴으로써 이끌어낸 결론들이, 전적으로 진실이고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들의 가르침들이, 성경인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자리잡은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진실이자 신뢰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 그런것들이 항상 진실이고 믿을만한 것은 아니었다.

불행히도, 아주 자주, 그들의 신앙고백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으로 선택한 구절들이 잘못 이해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교회 신학자들이 성경 전체를 참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이 내린 결론들이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구절을 다른 성경구절과 비교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조심스럽게 연구하지 않았다. 그들이 성경 전체가 무오한 것으로 믿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들은 그들의 교리들을 승인하기 위하여 그들이 선택한 그런 구절들만을 신뢰하였던 것이다. 그런즉, 효과적으로 그들은, 성경 전체에 담긴 각각의 구절이 가진 권위를 부정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신뢰한 오점의 결과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끔은 진리에서 멀어졌다. 그런 이유로 해서, 교회시대 전반에 걸쳐서 여러다른 교단들에 의하여 성경의 교리들이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예를 들면, 침례교는 루터교와 불일치 하였고, 루터교는 장로교와, 장로교는 침례교 등등, 성경의 많은 가르침에 관련하여 불일치하였다.

우리는 각각의 성경의 교리들에 관련하여 성경이 진실이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고 있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의** 대답만이 있을 수 있음을 안다. 그런즉, 다른 교단들에 의하여 고수되는 특정한 교리에 관하여 여러다른 견해가 있다면, 기껏해야 이런 교단들 가운데 오직 한 교단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뿐, 다른 모든 교단들은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반면에, 만일 교단들이 성경전체가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들의 신경들이 성경과 성경전체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논리적으로 결국 모든 교단들이 각각의 교리들을 다른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쳐야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교회들 사이에 커다란 분열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로마카톨릭, 몰몬, 제칠일 안식교가 있고, 초자연적 신비주의 교회들은, 그들의 교리들이 성경과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즉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주어진 메시지들로부터 온 것이라고 오늘날 공개적으로 선포한다. 그러므로, 바로 그 선포로써, 성경만이 그리고 성경 전체(요한계시록 22:18-19)가 되는 하나님의 권위와는 다른, 그들의 성경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결정하는 다른 권위를 그들이 가진 것이다. 1,900 년 전쯤에 성경이 일단 완성된 이상, 성경에 어떠한 것도 결코 추가될수 없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가 앞에서 지적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위에 열거한 모든 이유들과 예언이, **“주께서…그 즐거움을 더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사야 9:3), 라고 선언하신대로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기하시고 예언하셨다. 비록, 이스라엘이, 즉, 세상 전역에 걸친 지역 교회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로마서 9:27).

교회시대의 종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교회시대의 종말이 있을 것과, 교회의 권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택을 하신 그의 택한 자들을(에베소서 1:3-6) 거두시는 일을 완성하실 것임을 예언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보면, 마태복음 24 장 21 절에서 “큰 환난”으로 불린 마지막 환난이 있을 것임을 성경이 가르친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자.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중요하게도,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 찾아온 2,000 년의 역사를 뒤돌아 볼 수 있는 역사속의 시기 안에 살고 있다. 우리가 본 학습에서 앞서 배웠듯이, 교회의 역사에 관한 비성경적 근원에서 얻을 수 있는 역사적 정보들은, 성경이 그럴 것으로 예기한 대로 교회시대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질문을 가져온다. 그것은 항상, 성경 학도들이 결국, 이 세상에 종말이 찾아올 것이고, 그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완전한 형벌을 받을 것이며, 구원받은 자는 새 땅과 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것으로 이해하였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밤의 도적과 같이 오실 때에 찾아올 것으로 믿는 것이 상례였다. 즉, 우리는 정확한 종말의 시간에 관해서는 어느것도 알 수 없다고 이해하였던 것이다. 비록 역사상 여러다른 시기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한 박해가 두드러지게 보였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해를 알고 있다고 감히 추측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이 잘못 알았던 것이 증명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신중히 분석하고 그것에 그들의 결론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교회시대를 통하여, 교회들이 바로 끝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밤의 도적 같이 오실 때에 갑자기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이 교회들이 가진 정상적인 이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관념의 주된 변화는, 이른바 천천년설이 가르쳐졌을 때, 특별히 침례교회 안에서 지난 마지막 세기 동안 흔히 통용되었다. 그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밤의 도적 같이 오실 것이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아 올라가는 교회의 휴거가 있을것이며, 그와 동시에, 혹은 바로 그 전에, 칠년간의 큰 환난기가 올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 칠년간에 이어서 즉시,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재림하시어, 현재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1,000 년간 현재의 지상에서 다스리실 것이다. 바로 이 1,000 년의 기간이 지난후,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었다. 완전히 부정확한 이런 종류의 가르침이 가능한 것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책의 여러 장에서 말할 것도 없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것이 극도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오직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에 와서, 말세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참조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제 3 장. 말세에 대한 이해를 지연시키신 하나님의 계획

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실제로 그 끝이 가까와지기 전에는 성경이 주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이해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가르쳐준다. 예를 들면, 다니엘 책의 많은 구절들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9절에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찌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의 종말에 아주 가까와 진 시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참으로 믿는자들이 세상의 말세에 대한 복음에 관련한 어떠한 실제상의 정보들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이 종말에 이르기 직전에, 그런 종류의 정보가 참 믿는자들에게 허락되어 그들이 또한 그 정보를 세상에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말세에 대한 정보가 이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하나의 수단은, 사실상 모든 교회들이 사람이 만든 성경 해석 방법을 채택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며, 그것으로써 신학자들의 마음속에 거대한 성경의 정보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된다. 본 학습에서 일찍이 이러한 슬픈 사실을 우리가 주목했던 것을 기억하라.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신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친다(마가복음 4:34). 비유란, 세상의 이야기로서 천국의 의미, 혹은 영적인 의미를 가진 것을 말한다. 즉, 성경은, 전적으로 영적인 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바로 핵심이 되신다(요한복음 1:14). 그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모든 역사적 정보들, 그리고 기록된 대화, 그리고 주목되는 일화들은, 절대적으로 진실이며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역사적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임을 아는 것은, 실제로 성경이 가진 막대한 진리의 창고에 비하면 오직 한편의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성경에 있는 각각의 대화, 각각의 일화, 각각의 단어들은, 극도로 중요한 영적인 진리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가 신중하게 계획하시고 만드신 것이다.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데에는, 성경 구절을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하는(고린도전서 2:13), 막대한 성경 학습이 요구된다. 그것은 또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진리를 구하는 자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일이 요구된다. 이미 말했듯이, 종말이 가까와 질 때까지,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드러내는 것은, 즉, 진리를 구하는 자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 교회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눈을 어렵게 축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걸쳐서 위치한 교회들의 성경 교사들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기세를 좀처럼 보이지 않으셨다. 그런즉, 예를 들면, 그들이 완전히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학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교회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진술들을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막으셨는지에 대한 또다른 예가 주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자들은, 성경의 원래 언어에 쓰여진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진실이며 믿을 가치 있는 것임을 이해한다. 번역자들이 간혹 번역하는 가운데 실수를 했을 수는 있으나, 번역되어지는 히브리어나 희랍어 단어들은 결코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래의 히브리어나 희랍어에 대한 질문이 가진 문제는 특별히 성경의 숫자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다. 예를 들면, 신학자들은, 성경의 한 구절에서 기록된 어떤 왕의 지배기간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주어진 정보와 화합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즉, 그들은 자주, 서기들이 원래의 성경을 복사할 때에, 사고적으로 한 철자를 원래의 숫자의 철자에서 약간 변화시켜서, 원래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숫자를 만들어, 그 실수가 계속적으로 복사를 할 때에 더해졌다고 하여, 가끔은 실수를 했음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결과로, 그들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숫자들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한다.

성경에 대한 그런 종류의 태도는, 우리가 어떠한 성경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성경에 기록된 어떤 숫자에 있어서 그런 종류의 실수가 가능하다면, 성경의 어떤 단어에 관련해서도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성경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가치가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기 원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절들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는, 성경 교사들이 성경은 무오하고 오류가 없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성경 전체 안에 있는 각각의 모든 단어들이 정말로 진실임을 믿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성경 전체가 무오한 것임을 믿는다면, 그들은 서기들의 실수와 같은 그런 일에 대하여 결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호하시어, 서기들의 실수가 발생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고의적으로 진리들을 숨기시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신학자들이 성경의 어떤 단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진리들이 숨겨진 채로 남아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리들을 드러내시기로 택하실 때까지 성경의 특정한 어떤 진리들을 어떻게 숨겨놓으셨는지에 대한 여러가지 다른 방법 가운데, 이들은 단지 두가지의 예가 된다. 어떤 사람도, 성경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그 자신의 지능이나 혹은 거룩함이나 의로움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진리들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없이, 그가 이렇게 하시는 그분 자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거의 2,000년 전에, 성경을 기록하시는 일을 끝마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종말에 가까와지기 전에는 성경의 수많은 진리들이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거의 2,000년간, 참으로 구원을 받았던 헌신적이고 신실한 성경 학자들이, 성경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들은 가능한한 성경의 많은 것을 이해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

그런즉,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복잡하고 어렵게 쓰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왜 교회들이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을 채택하도록 그가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종말의 시간에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며, 예전의 성경 학도들 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의 진리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부수적인 진리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진술하신 의도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시기에 도달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전에는 비밀스러웠던 성경의 구절들이 이제 이해되고 있다. 거의 매일같이, 새로운 진리가 성경으로부터 쏟아져 나온다.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크게 이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성경 말씀을 서로 비교하는 성경의 원칙을 따르고, 성경에 기록된 각각의 역사적 사건과 각각의 일화, 그리고 각각의 묘사 안에 숨겨진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이전에는 가장 열성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찾았던 자들이 거부당했던 모든 종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계신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마감하는 사건들의 성경적 양식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좀 더 많은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진리를 구하여 성경 전체를 조심스레 상고하는 참 믿는자들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적 시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정보들이 언젠가 참 믿는자들에게 이해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상기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잠언서 8장 5절로부터 7절까지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릇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이나 세상의 종말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과정의 정보에 대한 시간표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가르치신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지닌 사람, 즉, 참으로 믿는자의 삶 속에서, 그가 시간과 심판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사실인즉슨, 참 믿는자들은 성경으로부터 시간에 대한 거대한 양의 정보들을 알게 될 것이지만, 참 믿는자들은, 오직 오늘날에 와서만 이 진리를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참 믿는자들이 성경으로부터 11,013 B.C.에 있었던 창조를 시작으로 하여 전체적인 역사의 달력을 발견하게 된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이다.

잠언서 8장에 세워진 그 원칙은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부터 6절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읽는 바와 같이 선언되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롭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찌라

이 구절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지식에 만족하거나, 혹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철학, 즉 심판 날에 대하여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밤의 도적과 같이 찾아오실 것임을 가르친다. 그들은 성경이 주는 시간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없고 신뢰도 없다.

그런 반면에, 깨어서 근신하는 자들, 즉 건전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이 부활한 영혼을 주셨기 때문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과 그 성격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원칙은 아모스 3장 7절의 언어에 세워져 있는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러한 원칙들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는 사건들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세상의 종말에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믿는 이러한 진리들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왔을 뿐 아니라, 또한 성경의 가장 신중하고 정밀한 학습에 비추어 증명되어야 한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밤의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베드로후서 3:10; 데살로니가전서 5:2). 교회시대를 거쳐서, 교회가 이렇게 가르쳐왔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그들의 최선의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경 교사들과 신학자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올바르게 주장하였고, 그것은, 우리가 내일 살아있을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회들은, 세상의 종말과 심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라도 일어날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교회시대 전반에 걸쳐서, 성경의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아무도, 창조의 정확한 해와, 노아시대의 홍수가 일어난 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해,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신 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과거의 사건들의 시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의 이러한 결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시기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의하여 신중하게 계획된 것이었다. 이것은 다니엘 12 장에서, 종말에 관한 수많은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받았던 다니엘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다니엘 12:4)는 말씀을 들었던 곳에서 지적된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종말의 시간에 와 있고, 하나님께서 잠언서 8 장 5 절과 6 절, 그리고 아모스 3 장 7 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진술의 중요성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서 주목해 보았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 장 2 절로부터 6 절에 걸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밤의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며,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현재 종말의 시간에 아주 가까이 와 있으므로, 이런 구절들은 극도로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성경을 신중하게 공부함으로써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펼쳐 볼 수 있게 되었다.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의 정확한 시간표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드러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에 근접해서 일어나야 할 사건들에 관한 수많은 정보들 역시 주었다.

이런 일로 우리가 당황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온 땅을 멸하셨을 때, 그 당시 세상이 그 무서운 사건, 즉 거대한 홍수에 의하여 세상의 멸망이 닥쳐올 것을 알도록 그가 확실히 하였고, 그 정확한 날에 그 일이 발생하였다. 노아는 거대한 방주를 건설한 자로서, 그가 그것을 건축하는 일이 그 당시 세상에 잘 알려져 있었을 뿐 아니라, 노아 자신이 “의의 전파자” (베드로후서 2:5)이기도 하였다. 홍수가 일어나기 칠일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일어나게 될 정확한 날짜를 주셨다(창세기 7:4, 10, 16).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악한 니느웨 성을 멸하시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어, 요나가 그 성을 향하여 경고하기 시작한 후 40 일 후에 그 성이 멸망될 것임을 경고하게 하셨다(요나 3:4).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정확한 시간표에 관련한 정보들을 주고 계심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 정보들은 오직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한다. 오늘의 성경은, 1,900 년 이전에 완성되었던 그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종말이 오기 전에는 이러한 정보들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세상의 종말의 시기에 관한 이 자세한 정보는 성경의 단어들 안에 깊숙히 숨겨져 있었다. 그러므로, 심지어 신실하고 근면한 성경 학도들도 이것을 이해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가까와 지면서, 이러한 시간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모든 성경의 증거들이, 현재 우리가 종말에 거의 가까이 와있음을 보여주는 이유로,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시간의 정보가 이제 유용하게 되었고, 참으로 온 세상과 그것을 나누어야 할을 확신할 수 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에 관하여 성경이 주는 그 모든 정보들을 신중하게 조사해봄으로써, 지구가 존재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줄곧 일어날 장래의 사건들에 대한 성격과 시간에 대하여 우리가 상당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수많은 근본적인 진리들에 대한 윤곽을 가늠할 수 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성경은 아주 분석적인 책이다. 성경은, 주관적인 혹은 철학적인 추리를 권장하는 식으로 쓰여지지 않았다(베드로후서 1:20). 성경은 마치, 진리가 절대적인 사실로 나타나 있는 기술적인 책과 같이 쓰여졌다.

2. 성경에 기록된 각각의 숫자들은 정확한 것이다. 비록 어떤 숫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울 지라도, 그것이 결코 실수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3. 역사적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에는 커다란 정확성이 따른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 년 동안 정확한 그 날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정확히 그 마지막 날까지 40 년 동안 체류하였다.

4. 항상 그렇지는 않으나, 자주, 하나님께서 성경의 특정한 숫자들을,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시는데에 사용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8 장 21 절과 22 절에서 숫자의 영적인 중요성에 대하여 암시해주신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형제를 몇번이나 용서해주어야 하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께서 답변을 위한 설명으로 숫자를 사용하셨다. 그가 22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번 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할찌니라

우리가 항상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들을 묘사하시는데 숫자를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숫자들은 그 자체로서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혹은 더 큰 숫자의 일부로서 기능을 할 수도 있다.

이것은 수많은 해로 간격이 떨어져서 병행되는 사건들을 함께 연결시켜주고 조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러한 숫자들의 거의 대부분을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보았다.

- 2 - 복음을 전하도록 임무를 받은 자들
- 3 - 하나님의 목적
- 4 -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의미하시는 가장 확장된 정도의 시간이나 거리
- 5 -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강조하는 속죄
- 7 -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완벽한 충족
- 10 - 의미하는 것에 대한 완전성
- 11 - 창조 후 11,000 년에 일어난 그리스도의 초림
- 12 - 의미하는 것에 대한 충만함
- 13 - 창조 후 정확히 13,000 년에 일어나기 시작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정보
- 17 - 천국
- 23 - 하나님의 진노 혹은 심판
- 37 - 하나님의 진노 혹은 심판
- 40 - 시험
- 43 - 하나님의 진노 혹은 심판

큰 숫자를 작은 숫자로 나누어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한 예가 요한복음 21 장에 주어져 있다. 거기에서 성경은 153 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 물고기는 배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육지에 이끌어졌는데, 그 육지는 천국을 나타내고, 배는 지역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말해서, 이 물고기들은 교회시대가 끝난후, 바다로 상징된 지옥에서 구원을 얻은 택함을 받은 자들, 즉 참으로 믿는자 모두를 대표한다. 숫자 153 은, $3 \times 3 \times 17 = 153$ 으로 나누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 숫자들은, 153 이란 숫자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가 구원시키신 모든 사람들을 천국(17)으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목적(3)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숫자 153 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 속에 숨겨진 영적인 진리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5. 가끔 성경은 장래 사건을 예언하는 어떤 숫자에 우리의 관심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면, 다니엘 12 장 12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서 1,335 날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임을 발견하는데, 지상에서의 그분의 영적인 대속의 일은, A.D.33 9 월 26 일에 시작되었고, 그 때에 그가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 그 기간은 A.D.33 5 월 22 일까지 계속되는데, 그 날이 오순절로서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날이었다. 이 두가지 사건들의 간격이 그 날을 포함하여 정확히 1,335 일로서, 다니엘 12 장 12 절이 예언한 것이다.

6. 어떠한 성경의 진리라도 참으로 이해하는 일은, 오직 성령이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아야 할 시기임을 결정할 때에만 찾아올 수 있음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어느 진리가 알려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 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어떠한 진리라도 알고자 구하는 자는 누구나 이러한 영적인 감찰력을 구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이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는 사건들의 시기와 그 성격에 대한 이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7. 골로새서 2 장 16 절과 17 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들은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알려주신다. 그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꺾으려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의례적인 절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개하는 각각의 중요한 연결점을 기대하고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이 지켜지는 날에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오순절은, 교회시대가 시작될 때에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었다. 우리는 지구가 존재하는 마지막 날까지 줄곧 이어서 이런 원칙이 따르는 것을 발견할 것이며, 그 마지막 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로 확인 되는 날에 올 것이다.

우리의 성경 학습에서, 만일 이러한 일곱가지의 원칙들을 염두에 둔다면, 성경으로부터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전개하는 중요한 연결점에 대한 성경의 의례적인 날짜들이 가진 관계성에 대하여 말해주는 7 점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이 문제를 좀 더 잘 강조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연결점들 사이에 자주 존재하는 커다란 정확성을 또한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후에, 이 정확성이 세상이 존재하는 가장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중요한 시간의 연결점들은 의례적인 절기들과 연결된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시간을 전개하는 데에 있어서 수많은 중요한 연결점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지켜야 했던 의례적인 절기들과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다. 성경의 의례적인 달력은 새달이 시작해서 다음 달이 되기까지 경과되는 시간에 의하여 다스려졌으며, 이것으로써 29 일이나 30 일간의 성경의 달력이 만들어졌다. 성경안에 있는 시간적 정보들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한 해의 첫번째 달이, 가능한한 춘분점에 가까운 날에 시작하였고, 그러나, 3 월 21 일이나 3 월 22 일이 되는 춘분보다 14 일 이전에는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중요한 면들로 확인되었던 아주 중요한 여러개의 의례적인 절기들을 제도화하셨다. 그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 였다. 이 중요한 의례적인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1. 유월절, 첫번째 달의 14 번째 날

2. 오순절, 맥추절로도 불림, 유월절 이후 첫번째 오거나 혹은 유월절과 동시에 오는 제 칠일 안식일 이후 50 일

3. 일곱번째 달의 첫날은 신학자들이 나팔 절기로 불렀다. 더 적절하게 말하자면, 회년의 절기라고 불려져야 한다. 그 날 울려진 나팔들은 성경의 은 나팔이 아니었다. 그날에는 양의 뿔로 만든 “쇼파(*shophar*)” 를 불었다.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했을 때는, 그 날을 회년의 날(민수기 29:1) 혹은 회년을 기념하는 날로 말한다(레위기 23:24).

4. 오십년 마다 오는 매번의 해는, 복음(자유)이 전 세계에 선포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회년은 1407 B.C. 에 시작하였고, 그 해가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해로서, 그로부터 50 년을 간격으로 해서 지켜져야 했다(레위기 25:8-13). 그러므로, 7 B.C.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해로서, 회년이었다. 그리고 A.D.1994 는, 7 B.C.로부터 2,000 년이 지난 후가 되며, 역시 회년이었다.

5. 일곱번째 달의 제 십일은 속죄일로 불렀다. 이 날 역시 회년의 날(레위기 25:9)로 불렸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를 마련하신 커다란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6. 일곱번째 달의 15 번째 날로부터 22 번째 날까지는 초막절로서, 장막절과 같은 시기였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각각의 절기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전개시키는 아주 중요한 연결점들로 확인된다. 우리가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성경의 모든 정보들을 조화시킬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한다.

1. 성경에 있는 상당한 양의 증거들이 모든 점으로 볼 때, 회년의 가장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7 B.C. 10 월 2 일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지적해준다. 7 B.C.는 회년이다. 7 B.C. 10 월 2 일은 속죄일로서, 그 날 회년의 “쇼파(*shofar*)” (양의 뿔로 만든 나팔)를 불어야 했던 날이었다. 그런즉, 속죄일과 7 B.C.는 회년과 동일시 된다. 회년이, 복음이 전 세계에 공포되어야 했던 사실에 초점을 두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마련하신 것은 복음이 세상 전체를 통하여 공포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회년의 가장 본질이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간이, 회년에 초점을 맞춘 날과 해에 뚜렷히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하나님의 구원계획 안에서 그 다음에 오는 연결점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신 날이었다. 그 날은, 그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선포되신 날이었다. 현대 달력에 따르면, 그 날이 A.D. 29, 9 월 26 일이었다. 성경의 달력에 따르면, 그 날은 일곱번째 달의 첫번째 날로서, 회년의 절기(신학자들에 의하여 나팔 절기로 잘못 불렸음)이다. 우리의 회년이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 공식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것과 회년의 절기 사이에 아름다운 유사함이 있음을 확연히 볼 수 있다.

3. 하나님의 희생된 어린양으로서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바대로 그가 구원하시고자 하신 자들에게 내려졌을 형벌과 대등한 형벌을,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실제로 그 형벌을 담당하셨다. 이 거대한 형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저녁에 시작하여 금요일 해가 지기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이 무서운 사건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성경이 명령했던 시간과 정확히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그 금요일이, 성경의 달력에 의하면, 첫번째 달의 열네번째 날이었다. 우리의 현대 달력에 따르면, 그 날은 A.D.33 4 월 1 일이었다.

4. A.D.33 에, 성경의 달력이 우리의 현대 달력에 따라, 5 월 22 일날 오순절을 지키도록 요구하였다. 이 날이, 추수한 첫 열매들이 들어온 날이었다. 바로 그 날, A.D.33 5 월 22 일, 성령이 강림하였고, 교회시대의 첫 열매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여보내졌다. 사도행전 2 장 41 절에서 약 3,000 명이 그날 구원을 받았다고 읽은 것을 기억하라.

5. 교회시대 전체를 통하여 매년의 오순절이 A.D.33 으로부터 1988 년까지 계속되었고, 그것은 첫 열매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했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시대는 1988 년 오순절 바로 전날 끝이 나야 할 것이었다. 이 날은 1988 년 5 월 21 일이었다. 그러므로, 교회시대가 정확히 1,955 년 동안 완전하게 바로 그 날까지 계속되었다.

6. 본 학습을 계속하면서, 교회시대가 1988(A.D.)년 5 월 21 일에 끝났음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세상을 이룬바 성경이 “큰 환난”으로 부르는 것을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하신 시간과 일치하였다. 우리는 8,400 일의 환난기 중, 그 처음 오는 2,300 일 동안, 사실상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역시 알게 될 것이다.

7. 그러나 그 때에, 본 학습에서 발견할 것으로서, 큰 환난이 시작 된 후 2,300 일이 지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커다란 구원계획이 시작되었다. 역사속의 그 날은 1994(A.D.)년 9 월 7 일이었다. 그 날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주시어, 그 후 17 년 동안 온 세상에 걸쳐서, 큰 무리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날이었다.* 참으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이 경외로운 하나님의 행위를 알았던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준다. 성경의 달력에 따르면, 그 9 월 7 일이, 일곱번째 달의 첫째 날로서, 희년의 절기(신학자들이 나팔 절기로 잘못 불렀던 것을 기억하라)가 지켜져야 했던 날이었다. 그 해, 1994 년에 이 장대한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7 B.C. 역시 희년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해 역시 희년이였다.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전개되는 시간이 의례적인 절기들과 광목하게 연결되는 것을 본다.

중요한 구원의 사건들이 가진 정확성

성경을 신중히 학습해보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중요한 연결점을 전개하는 것이 우연이나 혹은 오류가 전혀 아님을 우리가 알게된다. 각각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법률서인 성경 안에서 드러내어진, 아주 조심스럽게 짜여진 시간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었다. 다음에 오는 것들은 몇가지 이러한 예가 된다.

1. 이스라엘은 430 년 동안 정확히 그날까지 애굽에 있었다(출애굽기 12:40-41). 그 해들은 1877 B.C.로부터 1447 B.C.까지였다.

2. 이스라엘이 1447 B.C.에 애굽을 떠나, 정확히 그날까지 40 년 후에 요단강에 이르렀고, 그 때에 그들이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3. 다니엘 12 장 12 절에서 예언되었듯이, 그 날을 포함하여 정확히 1,335 일 만에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일어났다. 그가 A.D.29, 9 월 26 일에 그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셨고, 그 때에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선포되었다(요한복음 1:29). 그 날을 포함하여 정확히 1,335 일 후, A.D.33, 5 월 22 일에, 성령이 강림하여, 공식적으로 교회시대가 시작되었다.

4. 교회시대는 바로 그 날까지 포함하여 정확히 1,955 년을 둘러싸서, A.D.33 5 월 22 일 오순절에 시작하여, 1988(A.D.) 5 월 21 일 오순절 바로 전날에 끝이 났다.

*에스겔 39 장 29 절에서 우리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고 읽는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라는 문구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계획으로 확인되는데, 그 계획은 큰 환난의 마지막 부분 동안에 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했던 1,480 년 동안,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했던 1,955 년의 교회시대 동안 모두 지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심으로써 끝이났기 때문이다. 큰 환난의 마지막 부분 동안, 오직 마지막 추수를 거두시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얼굴을 결코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요엘 2:28-32 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쏟아내리시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곳을 보라. 이 구절들은 사도행전 2:17-21 에 인용되어있다. 요엘 2 장에서는 큰 환난기 동안 성령이 쏟아내리는 것에 초점이 있다. 사도행전 2 장에서, 성령이 쏟아내리는 것에 대한 초점은 A.D.33 오순절과 큰 환난에 맞추어져 있다.

5. 11,013 B.C.에 있었던 창조로부터 교회시대의 종말 바로 그날까지 정확히 13,000 년이란 세월이 있었고, 그 끝이 역시 구원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우리는 이것이 A.D.1988 에 시작되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6. 4990 B.C. 지상에서 모든 것을 멸망시켰던 노아의 홍수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우주를 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실 해로써 우리가 알게 될 A.D.2011 년까지, 정확히 7,000 년이란 기간이 있다.

7. 다니엘 8 장 14 절에서 예언된 바와 같이, 우리는 정확히 2,300 일이 큰 환난의 시작으로 부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며, 이 기간은 1988 년 5 월 21 일에 교회시대의 종말로부터 성령이 쏟아질 때까지의 기간과 일치한다. 바로 이 성령의 강림은, 1994 년 9 월 7 일에 일어났으며, 이것이 마지막 장대한 17 년간 커다란 숫자의 사람들이 참 믿는자들이 되기 시작한 날이다.

이러한 것들은, 복음을 세상에서 전개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시간적 간격들이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진리를 묘사하는데 성전을 사용하셨다

가끔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건을 나타낸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경은 노아시대의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설명한다. 인류를 멸하시는데 홍수의 물을 그가 사용하셨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3 장 20 절에서 홍수에 대하여 말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고 지적하신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한 것은 구원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애굽 군대들이 홍해에서 멸망당했던 것은, 사악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묘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건을 통하여 그의 진노와 자비를 보여주신다.

이와 비슷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위엄있는 성전을 솔로몬으로 하여금 건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기 위한 것과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다. 이 성전은, 실로에 있었던 성막과 같이, 교회시대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묘사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실로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의 성전 모두를 멸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악함 때문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그의 심판을 내리셨다. 이 교회들이 성막과 성전으로 상징되었다. 오늘날의 교회중 어느 한 교회도, 더이상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회시대 전체를 상징했던 성전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마태복음 24:1-3).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훌륭한 구원계획을 상징하고 묘사하는데 솔로몬의 성전을 역시 사용하신다. 그가 성경에서 성전의 낙성식을 설명할때 이렇게 하셨다. 이 낙성식과 관련하여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성경의 달력 안에 일곱번째 달에 일어났다(열왕기상 8:2). 성경은 일곱번째 달을 한 해의 마지막 달로 말한다(출애굽기 23:16, 34:22). 세상의 역사에 관한 한,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와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마지막 추수의 시기가 되는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복음의 사건들을 가리키거나 혹은 상징하고 있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성전 낙성식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시간적 정보를 준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이 우리가 기대하는 날 보다 하루가 늦어질 것임을 보여주는데 흥미로운 방법을 쓰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의 시간을 가늠하는 큰 정확성을 보여주신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란 말을 사용하신 방법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마지막 날”이란 문구를 조사해보면, 그것이 성경에 오직 여덟 군데에서만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이들중 네 군데가 요한복음 6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그들의 부활한 몸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요한복음 6:39, 40, 44, 54). “마지막 날”이란 문구는 요한복음 11 장 24 절에서 역시 발견된다. 거기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죽은 형제 나사로의 무덤 밖에 서서, 성령의 감동 아래 다음과 같이 선언하는 것을 읽는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 곳에도 역시 기록되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이란 문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남은 두 군데는, 아주 중요하게, 초막절의 마지막 날과 관련되어 있다. 그 구절들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 느헤미야 8장 18절에 기록되어있다.

초막절은 수장절과 동시에 일어난다. 이러한 절기들은 틀림없이 세상의 종말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이란 말을 초막절과 관련해서 사용하신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다. 즉, 초막절의 마지막 날은 세상의 종말의 마지막 날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성경이, 예녹이 365 세에, 죽음 없이 승천된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창세기 5:23-24). 물론, 참 믿는자에게 일어난 이러한 휴거의 첫번째 예가, 지구 역사의 한 해(365 날)와 일치하는 연령에 일어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성경의 의례적인 달력 안에서, 초막절과 수장절의 이 동시성의 절기들은 칠일 간의 기간을 가지고 일곱번째 달의 15 일째에 시작되었다. 이 칠일이 경과된 바로 직후에 따라오는, 즉, 성경이 여덟번째 날로 부르는 그 날 역시 “거룩한 성회”(레위기 23:36)와 “안식일”(레위기 23:39)로 모두 불렸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사실상 일곱번째 달의 15 일째에 시작하여 22 일째에 마쳐지는 여덟 날을 포함하고,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준수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날들을 세상의 종말에 적용시킬 때에, 그 여덟번째 날이 이들의 간격을 가진 것으로 고려되어서, 여덟번째 날이 성경의 일곱번째 달의 23 일째 되는 날을 역시 포함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솔로몬의 성전의 낙성식에 관련되는 성경의 정보 안에서 하나님이 이 진리를 발전시키셨는데,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과 충격적으로 동일시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역대하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을 설명하신다. 낙성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몇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시기는 일곱번째 달이었다 (역대하 7:10).
2. 낙성식은 칠일간이었다 (역대하 7:9).
3. 그 다음 그들이 칠일간의 초막절(성경절)을 지켰다. 그러므로, 14 일이 경과하였다 (열왕기상 8:65).
4. 칠일간의 초막절을 기념한 후에 여덟번째 날에 그들이 엄숙한 성회를 준수하였다 (역대하 7:8-9).

이 여덟번째 날은 안식일로서 지켜져야 했고(레위기 23:39), 그 날은 아무 일도해서는 안되었으며 여행하는 일이 제한을 받았다. 사도행전 1 장 12 절에 따르면,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는 반 마일도 채 되지 않았고, 그 정도의 거리만이,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길이, 내지는 거리였다. 괄목할 만하게도, 열왕기상 8 장 66 절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읽는다.

제 팔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 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 중 다윗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제 팔일, 10월 21, 2011

우리가 주목해 보았듯이, 이 여덟번째 날은 보통 일곱번째 달 22 일째 날이었고, 안식일로서 지켜져야 했다.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사람들이 왔다(열왕기상 8:65).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로 지켜져야 했던 날 움직이고 여행하는 그 모든 일을 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여덟번째 날이 추가로 계속되어야 함을 지적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추가된 하루가 일곱번째 달의 23 일째 되는 날이었다. 우리가 역대하 7 장 10 절에서 이렇게 읽는다.

칠월 이십 삼일에 왕이 백성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 구절의 언어가 (위에 인용된)열왕기상 8 장 66 절의 그것과 거의 동일한 언어임을 주목하라. 열왕기상 8 장 66 절은 그 달의 22 번 째 날이었던 여덟번 째 날을 가리켰고, 역대하 7 장 10 절은 그 달의 23 번 째 날을 가리키고 있다.

성전 낙성식과 초막절(성경절)을 지키는 일이, 세상의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계획의 완성과 친밀하게 동일시 된다는 점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러한 발견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즉, A.D.2011 에, 초막절(성경절)의 여덟번 째 날이 사실상 이들의 길어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여덟번 째 날(일곱번 째 달의 22 일 째 날)이 10 월 20 일이 되는 반면, 사실상 그것은 역대하 7 장 10 절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일곱번 째 달의 23 일째 되는 날에 지켜져야 하며, 바로 그 날이 10 월 21 일 2011 년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1 년 10 월 21 일이 이 지구가 존재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초막절을 보는 또다른 시각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을 조사해볼 때에, 초막절이 낙성식 활동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었음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또한 그것이 세상의 종말의 시기를 우리가 아는데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왜 그것이 초막절로 불린 것일까?

이 절기에 관련하여, “초막”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영어로는 흔히 초막이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로 많이 번역되었다. 그 단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광야에 40 년간 체류하는 동안 초막을 덮어주던 구름과 불로 확인되는 단어임을 우리가 발견할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구름과 불이 하나님의 계명을 나타내었음을 발견할 것이고, 그런즉, 초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막절은 사실상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절기, 혹은 성경의 절기라고 할 수 있다. 초막절(성경절)은 성경인 하나님의 법률서의 영광으로 발전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이다.

“초막절”이란 문구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초막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는 “수카(sukkah)”로서, “booth”라는 같은 의미의 영어 단어로도 번역되었다. 이 단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 4 장 5 절과 6 절이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겠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느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이 구절에서 “**덮으실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적절히 잘 번역되었다. “**천막이 있어서**”라고 한 곳도 한글 개역성경에서는 적절하게 번역되었다.

이러한 구절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가르친다.

1. “**그 거하시느 온 시온산**”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면들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그곳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2. “**모든 집회 위에**” 이 단수 단어는 구원받게 된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의 크고 영원한 집회를 말한다.
3.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 이 구절은 성경인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인류를 영적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것이다.
4.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로서 덮어주는 것이다.
5.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구름과 불, 즉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주는 천막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인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을 마련해준다.

앞에서 우리는 그 구름과 불기둥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다는 것을 배웠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 년간 체류하는 동안 구름과 불기둥이 그들의 방향을 인도해준 것에 대하여 성경이 수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함으로써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민수기 9 장 21 절로부터 23 절까지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읽는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 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 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 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좇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민수기 9 장 15 절로부터 23 절까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낮의 구름과 밤의 불을 아주 분명하게 그의 계명들과 관련시키신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계명은 성경이다.

물론 우리는, 만일 우리가 전혀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법이, 그의 진노의 저주가 우리에게 떨어지도록 만들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 중의 한 사람이라면(만일 우리가 우리의 부활한 새 영혼을 받았다면 우리가 택한 자임을 알 수 있다), 그 때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의 형벌 아래 우리가 있지 않다. 즉, 법이 더이상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 그 대신, 그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증이 된다. 우리는 그 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가려졌다. 그리고 성경인 그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살 것인지에 대한 완전한 방향을 제공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극치에 이르는 그분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경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배웠다. 그래서, “초막절”은 “성경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성경절은 수장절이 지켜졌던 똑같은 날에 준수되었다. 수장절은 한 해의 마지막 추수가 거두어지는 때와 똑같은 시기에 찾아왔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성경절에 의하여 성경이 영광을 받는다는 진리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이 지닌 영광스런 성격이, 세상의 종말 바로 직전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거대한 마지막 추수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에 더욱 더 나타난다는 점에 그 초점을 둔다.

이 마지막 추수는 로마서 9 장 28 절에 예언되어 있다. 그 말씀을 읽어보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희랍어 단어인 “로고스(logos)”는 보통 “말씀”으로 번역된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현재 진행되는 짧은 시기를 가리키고, 우리는 그것이 지구의 역사중 마지막 17 년이 될 것임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17 년의 중요성에 대한 열쇠는 하나님의 영광스런 말씀(로고스)이 되고, 그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현재 셀수 없이 큰 무리를 구원하고 계신다(요한계시록 7:9). 현재 진행되고 있는바, 세상을 마지막으로 복음화하는 이 일은, 넘어지거나 변경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완성으로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결점이나 주저함 없이 실행에 옮겨질 것이며, 단시간 안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온 세상에 걸쳐서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즉 택한자들이 들림을 받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제 4 장.

우리가 종말에 대한 시간표를 발견하기 시작한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 시간의 마지막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지도해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된 기본적인 진리들의 윤곽을 잡아볼 것이다.

지난 2,000 년 동안에 걸쳐서, 그 시간 동안, 이 지구 역사의 미래에 대한 전개를 발견하고자 성경을 부단히 상고해 왔던 헌신적이고 독실한 참 믿는자들에게 성경 전체가 유용한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의 역사가 종말에 이르는 때가 올 것이라는 하나의 진리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땅을 심판하시는 의로운 심판관이신 예수님의 재림과 일치할 것이고, 또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림을 받아 그곳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될 때와 일치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간이 오기 전에, 일종의 큰 환난 기간이 있을 것이다. 흔히, 이 시기가, 그리스도를 믿는자들에 대한 대량의 육신적 박해가 있을 시기로 잘못 이해되었다. 그러나 현실상, 그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이해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마태복음 24 장과 마가복음 13 장은 특별히 큰 주의를 가지고 학습되어야 하는 장들인데, 그 이유는 그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올 그런 환난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두 장들 안에서, 우리가 과거를 역사의 끝에 연결시키는 성경의 뼈대를 건축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상의 단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심이 사실이다. 그 단서는 마가복음 13 장 28 절로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구절은, 약 60 년 전, 1948 년 5 월 14 일 전까지는 이해되기 시작하지 못했던 구절이다. 바로 그 때에, 성경의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모습을 갖추었다. 이것은 기적 가운데 하나로서, 그 이유는, A.D.70 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과 함께 로마인들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 때로부터 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들 자신의 본국에서 세상의 한 국가로서 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의 기적과 같이, 1948 년 5 월 14 일에, 그들 자신의 본국에서 하나의 국가를 다시 이루게 되었다.

즉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극적인 사건을 마가복음 13 장 28 절의 무화과 나무 예언에 올바르게 연결시켰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로 상징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마가복음 13 장과 마태복음 24 장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구절이 강조하기 때문에, 세상의 종말의 시기가 아주 가까이 왔음에 대한 뚜렷한 단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예로써,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저주하시어 다시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무화과 나무로 상징된다.(마가복음 11:12-21)

이것은, 마태복음 24 장과 마가복음 13 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올(마태복음 24:29-31) 큰 환난(마태복음 24:21)의 시기와 동일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다른 단서는 요한계시록 7 장 9 절로부터 14 절에 걸쳐서 발견된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 큰 환난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하였다(“그(the)”라는 관사는 번역되지 않았으나, 희랍어 원본에는 있다). 그 외에도, 누가복음 21 장 22 절에서 역시 큰 환난의 시기에 대하여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형벌의 날로 말한다. 악한자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형벌의 시간이다. 큰 환난기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모든 지역 교회들을, 하나님의 심판 과정을 완성시키기 위한 발판으로 준비시키기 시작하셨다.

다음의 구절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마태복음 24 장 22 절의 말씀이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큰 환난의 시기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시작되는 때라고 이 구절이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에베소서 1:3-6) 하나님의 택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이 감하여졌다. 다시 말하면, 이 큰 환난 기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크게 확인되지만, 그와 동시에, 일종의 거대한 움직임의 구원 활동으로 그것이 확인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화합시킬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이 전개되는 것을 조사해봄으로써, 그리고 골로새서 2 장 16 절과 17 절의 가르침으로부터, 그것이 의례적인 절기들과 연결되는 것을 배웠다. 예를 들어, 희년은 세상에 자유(구원)가 포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사실인즉, 성경의 모든 증거들이, 모든 면으로 볼 때, 희년의 가장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B.C.7, 희년에, 속죄의 날 희년(히브리어 “테루아(teruah)”)의 나팔(쇼파)이 울려 퍼질 때에(레위기 25:9) 탄생하셨음을 지적한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A.D.29, 9 월 26 일에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음을 배웠다. 그 날은 성경적으로 티슈리 첫날(티슈리는 일곱번째 달이다)으로서, 희년의 날로 역시 불린다(민수기 29:1). 희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로부터 칠주 후에, 성령이 강림하여 전 세계적인 복음화가 시작되었다.

* 몇군데의 영문 번역에서는 “테루아(teruah)”란 히브리어 단어가 “나팔”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레위기 25 장 9 절에서 속죄일에 관하여, 우리는 이와 똑같은 단어 “테루아”가 “희년”으로 올바르게 번역된 것으로 읽는다. 그러므로, “나팔을 부는 날”이란 문구는 “희년의 날”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거대한 움직임의 구원 활동이 있다면, 그것은 희년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1948 년에 이어서, 또다른 희년이 언제 있을 것인가? 한 희년으로부터 그 다음 희년까지 정확히 50 년이 걸린다. 참으로, 1994 년은 1948 년 이후에 처음으로 오는 희년이다. 그것은 7 B.C. 희년으로부터 정확히 2,000 년 후에 온 헤이고, 희년이었던 7 B.C.에 희년의 가장 본질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희년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관련된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희년이 큰 환난기의 중앙에 있을 것이며, 그 시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활동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확신시켜준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동시적으로 상반되는 사건들이 동시에 있을 수 있으며, 어떻게 1994 년에 관련될 수 있는가?

다니엘 8 장의 예언은 큰 도움이 된다. 마태복음 24 장에서 우리가 이 큰 환난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 책에 있는 더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도록 지시하신다. 마태복음 24 장 15 절과 16 절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다니엘 8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극렬한 왕이 다스리게 될 2,300 일의 시기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옮겨지고, 멸망의 가증한 것이 일어나 성소가 밭에 짓밟히도록 만들 것이다(다니엘 8:12-14). 영적으로 말하면, 참 복음이 사단의 복음으로 대치될 것임을 의미한다. 중요하게도, 2,300 일에 대한 환상에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 8장 17절에,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고 선언하신다.

우리는 1994 년이 희년으로서, 복음을 전세계적으로 선포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는 것을 주목해보았다. 그렇다면, 그 해가 멸망의 가증한 것이 발생하는, 다니엘 8 장에서 말하는 2,300 일의 끝이 되는 해인가?

그렇다면, 1994 년보다 2,300 일 이전의 해가 1988 년이었고, 그러므로, 그 해가 큰 환난이 시작한 해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시기 동안, 즉 큰 환난의 첫부분 동안, 사실상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환난의 마지막 부분 동안,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뜻할 것이다(요한계시록 7:9-14).

우리가 이것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 7 장 11 절에서 “큰 환난” 이란 말이 야곱과 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칠년간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을 때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주의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야곱에게 무서운 경험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 “큰 환난” 이란 말은 마태복음 24 장 21 절에서 “큰 환난” 으로 번역된 것과 똑같은 회랍어 단어이다.*

아주 중요하게도, 우리는, 야곱이 1877 B.C.에 큰 환난의 시기 동안 애굽에 내려간 것을 발견한다. 우리가 마태복음 24 장 21 절의 큰 환난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있는 그 해는 희년인 1994 년이다. 이 해들, 즉 1877 년과 1994 년은 3,870 년의 간격을 가졌다. $1,877 + 1,994 - 1 = 3,870$. (0 해가 없는 이유로, 구약의 달력에서 신약으로 갈 때에 한 해가 제하여져야 한다.) 아주 충격적으로 $3,870 = 3 \times 1,290$ 이다.

숫자 1,290 이 아주 중요하게 보이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났던 또 다른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했다. 이 일은 587 B.C.에 일어났고, 그것은 유다민족에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가 내려졌던 70 년간의 기간 중이었다. 이 70 년간의 기간은 609 B.C.에 시작되었고, 539 B.C.에 끝이났으며, 그 때에 바벨론 성이 메데와 바사에 의하여 재패되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이 무서운 사건은 587 B.C.에 일어났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도, 우리가 조사해보고 있는 그 세가지 해들(1877 B.C. 587 B.C. A.D.1994)은 모두 함께 숫자 1,290 으로 연결된다.

$1877 \text{ B.C.} - 587 \text{ B.C.} = 1,290 \text{ 년}$

$587 \text{ B.C.} \text{ 부터 } A.D.1994 - 1 = 2,580 \text{ 년} = 2 \times 1,290$

$1877 \text{ B.C.} \text{ 부터 } A.D.1994 - 1 = 3,870 = 3 \times 1,290$

숫자 1,290 은, 위에 열거한 세번의 시기에 일어나는 영적인 활동과 관련하여 성경에 크게 주목되었다. 성경은 다음에 우리가 읽는 바, 다니엘 12 장 11 절에 숫자 1,290 의 이러한 역할을 강조한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 이백 구십일을 지낼 것이요

가끔, 하나님께서 하루를 일년으로 나타내어서 말씀하신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민수기 14 장 34 절에서, 탐정군들이 가나안 땅을 물색했던 40 일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0 년 동안 광야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 12 장 11 절의 1,290 일이 1,290 년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야 했을 때를,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것에, 그리고 1994 희년에 일어났던 무언가 무서운 일에, 그 무서운 시기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두 함께 연결시키고 계신다. 그 무서운 일이란 무엇일까?

가나안 땅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사용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예루살렘과 성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형적으로 상징한다. 그러므로,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역시,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는 것, 그리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당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1994 년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였는가? 교회시대 전반에 걸쳐서, 모든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였던 것은, 그들이 곧,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외형적으로 대표하도록 만드신 거룩한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성경을 관리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지닌 자들이었다.

야곱이 경험했던 큰 환난(사도행전 7:11-12)은 칠년의 기근을 둘러싸고 있었으나, 그 기간 동안, 가장 심한 때는 처음 이년째 끝에 일어났는데, 그 때에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1877 B.C.). 야곱과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도록 명령을 받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보다 더 상처가 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사단의 왕국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넘겨졌다. 그러므로, 상징적으로 볼 때, 그것은 사단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권이 주어진 것과 같다. 그러므로, 1877 B.C.는 슬프고 곤혹한 해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경험한 70 년의 환난중 가장 어려웠던 해는 587 B.C.로서, 그 때에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던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었다. 그 해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성전과 예루살렘이 사단(이사야 14)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왕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또다시, 그것은 마치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 이른 것과 같았다.

이 두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은 A.D.1994, 희년에 일어난 일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1,955 년 동안, 온 세상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징이었고, 그것은 마치 야곱의 시대에 가나안 땅과 같이, 그리고 이스라엘 땅인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에 있던 성전과 같은 것이었다.

1994 년에 앞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데에 교회들을 사용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셨음을 우리가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놀라운 희년의 해였던 1994 년이 교회들에게는 곤혹스러운 해였다. 온 세상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셀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셨지만, 교회들은 영적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 남아있게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일에 교회를 사용하시는 일을 영원히 마치고 계셨다. 그 상황은 1877 B.C., 가나안 땅이 이방인의 원전한 지배아래 처했을 때, 그리고 587 B.C., 유다 땅이 바벨론 왕의 지배 아래 처했을 때와 똑같은 것이었다.

1877 B.C., 그 해에, 마치 587 B.C.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70 년의 환난기간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던 것과 같이, 야곱이 경험한 그 환난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역시, 오늘날의 큰 환난도 1994 년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기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시는 일을 영원히 끝마치고 계셨던 것이 분명해졌다.

이와 같은 칠년의 환난과 칠십년의 두 환난기간이 오늘날의 큰 환난이 가진 양식이 되는 이유로, 우리는 현재의 이 환난기가 역시 칠이란 숫자로 확인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큰 환난의 처음 부분이 다니엘 8 장의 2,300 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임을 발견하였다. 야곱의 환난 경험이 칠년이란 세월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의 환난 경험이 70 년을 둘러싸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현재의 큰 환난기의 전체적인 시간이 역시 칠이란 숫자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것이 7,000 일이거나 혹은 $7 \times 12 \times 100$, 즉 8,400 일(23 년)과 대등한 것일수도 있다. 영적으로, 숫자 100 은 “완전성”을 의미하고, 숫자 12 는 “충만함”을 의미한다. 후에 우리가 큰 환난기가 8,400 일(23 년)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수많은 성경의 부수적인 정보로 확고히 증명된다. 놀라우게도, 23 년 동안 정확히 8,400 일이 있고, 숫자 23 은 아주 자주 하나님의 진노로 확인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칠년, 70 년, 그리고 8,400 일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사이에 존재하는 병행성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배운바와 같이, 야곱의 환난기인 칠년이 두부분으로 나누어졌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치명적인 경험은 칠년 동안의 처음 이년 끝에 있었다(창세기 45:6-8). 그러므로, 처음 부분은 전 기간의 칠분의 이가 되거나 혹은 28.6%가 된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환난이 609 B.C.에 시작되었고, 그 때에, 요시야 왕이 죽었으며, 계속해서 539 B.C.까지 이어졌으며, 그 때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하여 정복되었다. 이 70 년의 기간은 두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처음 부분은 22 년간이었다. 22 는 70 년의 31.4%이다.

야곱의 환난과 유다의 환난이 현재 우리의 큰 환난의 양식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큰 환난의 처음 부분이, 환난기 전체의 28.6%가 되거나 혹은 31.4%에 가까울 것으로 기대해볼 것이다. 참으로, 우리는 2,300 일이 8,400 일의 27.4%가 됨을 발견한다. 우리는 27.4%에서 28.6%, 그리고 31.4%의 근접성 사이에 존재하는 병행성을 볼 수 있다. 후에, 그 2,300 일을, 큰 환난기 전체의 8,400 일에 대한 첫부분으로서 시험삼아 나누어본 것이, 아주 정확한 것임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8,400 일이 숫자 $7(7 \times 12 \times 100)$ 로 장식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또한 두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첫부분은 전체의 약 30%가 된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진노로 확인되는 23 년이, 정확히 8,400 일의 길이를 가졌으므로, 큰 환난기가 정확히 8,400 일의 길이를 가진 것으로 믿을 수 있다는 강한 용기를 얻는다.

베드로전서 4 장 17 절을 읽어보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준비과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시작할 것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8,400 일(23 년)의 기간은 그 시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 큰 환난의 첫부분으로 확인되는 2,300 일은 역시 요한계시록 8 장 1 절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읽는 말씀과 동일한 것일 수 있다.

일곱째 인을 때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약 “반시” 라는 시간은 온 세상에, 그리고 모든 교회 안에서, 사실상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했던 때를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 15 장 10 절에서 다음과 같이 읽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때는, 하늘이 침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런 기쁨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시대가 끝나면서, 2,300 일의 기간이 시작되는 8,400 일(23 년)이란 기간이 있을 것이며, 그 때에 전 세계, 그리고 특히 교회들이 심판의 날을 위하여 준비될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3 장 7 절과 8 절에서 바다(하나님의 진노)에서 나오는 짐승(사단)에 대하여 우리가 읽는 것이며, 그 사단이 성도(교회에서 출회당한)들을 이기고 세상을 역시 지배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1994 년은 회년이었고, 그 때에 성령이 쏟아져 내렸으며(에스겔 39:25-29; 요엘 2:28-32),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마지막 위대한 기간이 발생하게 되어있었다. 우리는 이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다시 받게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믿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배운바 대로, 온 세상에 걸쳐서 존재해온 지역 교회들은, 성전으로 상징되었고, 때가 되면 그 성전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주신다(마태복음 24:1-3).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마태복음 24 장에서 말한 성전이, 짓밟힌 후 다시 재건되었다고 읽을 수 없다. 즉, 다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어느 교회도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다.

큰 환난은 8,400 일 전체로 확장되며, 그것이 정확히 총만 23 년이 된다. 이것은 회년인 1994 년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어떤 다른 수단을 사용하셨음을 의미한다. 그가 더이상 지역 회중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즉, 어떤 면에서, 1994 년이, 세상에 복음이 새롭게 뻗어 나가는 훌륭한 해가 된 반면에, 지역 교회에게 있어서는, 그 해가 가장 곤혹스런 해가 되었다. 그 이유는, 8,400 일간의 큰 환난이 끝날때까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회시대의 종말이 되는 날

그 동안 우리가 조사해본 정보들은, 회년인 1994 년이 2,300 일의 기간의 끝이 되며, 그 기간동안 전 세계에서 사실상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준다. 그 사실은, 교회시대의 종말이 오는 날짜를 우리가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것은 23 년(8,400 일)의 큰 환난이 시작되는 순간과 일치해야 한다.

2,300 일이란 시간은, 6 년보다 몇 달 긴 시간이다. 그러므로, 교회시대의 끝은 1994 년 보다 육년 앞서서 일어났어야 한다. 그런즉, 그것은 1988 년에 일어났음이 분명하다.

교회시대가 종말에 이른 1988 년의 정확한 날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순절로 역시 불린, 칠칠절의 의례적인 날과 교회시대가 연결되었던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유월절 이후에 오는 첫번째 토요일(제칠일 안식일)로부터 칠주가 되는 일요일에 지켜져야 했다. 그 날 첫열매들이 성전으로 들여보내졌다. 이것은 온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들여보내진 참 믿는자들의 첫번째 추수를 가져오는 것을 예기하였다. 교회시대의 공식적인 시작은 A.D.33, 오순절 날이었다. 그 날은, 우리의 달력과 일치시켰을 때, 5월 22일 A.D.33 이었다.

오순절이 매년 다가올 때, 영적으로 그것은 또다른 해의 첫 열매들을 계속해서 가져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A.D.1988 에 오순절과 동일시 되었던 첫열매들을 들여오는 일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1988 년의 오순절이 5월 22일에 일어났으므로, 교회시대의 마지막 날은, 5월 22일의 바로 전날인 5월 21일이었다. 신기하게도, 이것은, 공식적으로 A.D.33, 5월 22일에 시작한 교회시대가 A.D.33 으로부터 1988 년까지, 1,955 년을 가득채워서 그날까지 계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적 시간의 흐름의 정확성에 대한 또다른 암시이다.

그러므로, 1988 년 5월 21일이, 교회시대의 공식적인 끝이되고, 큰 환난의 공식적인 시작이 되었다. 큰 환난의 첫부분인 2,300 일은 1994 년 9월 7일에 끝났을 것이다. 중요하게도, 1994 년 9월 7일은 성경의 달력의 절기에 따르면, 티슈리 첫날, 즉 성경에서 회년의 절기로 역시 불렸던 날이었다. “회년” 이란 단어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모든 면에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2,300 일의 기간에 이어서, 6,100 일(8,400 - 2,300 = 6,100)이 23 년(8,400 일)의 큰 환난 기간에서 남게 된다. 이 6,100 일은 그러므로, 2011 년 5월 21일에 끝날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이 지구가 존재하는 마지막 날이, 초막절(성경절)을 지킴으로써 지적되었던 바, 2011 년 10월 21일이 됨을 배웠다. 그런즉, 큰 환난 후, 마지막 153 일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그 기간이 우리가 심판의 날로 발견하게 될 것으로서, 그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형벌의 과정을 마치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성경의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시험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의 흐름이 정확한지에 대한 많은 증명들을 성경이 어떻게 주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크게 도움을 준 근본적인 규칙이 골로새서 2 장 16 절과 17 절에 세워져 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꺾으려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계몽적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의례적인 법들을 지키는 시간이 장차 올 일의 시기를 가리키고 그것과 관련되는 원칙을 선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즉시 성경의 달력의 첫째 달(니산) 14 일째 날, 즉 유월절에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박히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왜, 약 칠주 후에, 성령이 강림하여 교회시대가 시작하였고, 바로 그 날 이스라엘이 오순절을 기념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다른 성경의 도움이 되는 예언으로서 우리가 본 학습에서 앞서 배웠던 것은 마가복음 13 장 28 절과 29 절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스라엘 민족은 자주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로 전형된다. 거의 2,000 년 동안 나라나 국적 없이 살아온 이스라엘은 거의 기적적으로 다시금 세상에 하나의 살아있는 민족으로 모습을 갖추었다. 이 굉장한 사건은 수많은 성경 교사들에 의하여, 마가복음 13 장의 이러한 예언에 대한 충족으로서 정확히 확인되었다. 이 사건이 1948 년 5 월 14 일에 일어났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구절들로 인하여, 마가복음 13 장에 윤곽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이, 1948 년에 이어서 아주 급세 일어나야 할 것이라고 배웠다.

세상의 종말로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주는 또다른 단서는, 1994 년이 회년의 해였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바와 같이, 회년의 가장 본질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7 B.C.에 탄생하셨고, 그 해는 회년이였다. 회년이, 세상에 자유(구원)가 선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마가복음 13 장의 신중한 학습과 그와 병행되는 마태복음 24 장, 그리고 누가복음 17 장, 그리고 누가복음 21 장은,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마감하시면서 발전될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지적하고 있다.

1. 하나님의 성전으로 상징되었던 세상에 걸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종말에 이르는 때가 올 것이다. **“둘 하나도 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마태복음 24:2). 그들은 **“멸망의 가증한 것”** (마태복음 24:15)으로 불린 사단에 의하여 전체가 짓밟힐 것이다.*

2. 이 때는 참 믿는자들이 출회를 당하고 교회를 떠나도록 명령을 받는 큰 환난의 시기가 될 것이다. 이 때는 교회안에 큰 배도가 있을 시기이며, 사단이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가져오는 시기가 될 것이다(마태복음 24:24).

3. 이 환난의 시기는, 야곱이 1877 B.C.에 하나님에 의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 가서 살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경험했던 칠년의 환난으로 상징되었다.

4. 그것은 또한 609 B.C.로부터 539 B.C.까지에 걸쳐서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난을 당했던 70 년의 기간으로 상징되었다. 이것은 609 B.C., 선한 왕 요시야가 죽임을 당했을 때로부터, 539 B.C.,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에게 정복당했을 때까지의 70 년의 기간이었고, 그 다음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두려운 시기 가운데, 587 B.C.에 예루살렘과 솔로몬의 장엄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당하였다.

5. 그보다는 약한 정도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또한,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그들의 땅으로 끌려갔을 때 칠개월의 기간으로 상징되었던 점이다. 이 일은, 1068-1067 B.C.에 일어났다.

그러므로, 숫자 7 은 우리가 마태복음 24 장에서 읽는 큰 환난의 기간과 긴밀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보였다.

모든 면으로 볼 때, 숫자 23 은 큰 환난기와 관련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거듭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기 위하여 성경에 사용되었고, 큰 환난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인하여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때를 말하며, 그 때는 바로 이 기간에 이어서 즉시 따라올 것이다. 정확히 8,400 일이 23 년을 가득채운 시간과 대등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숫자 7 과 23 은 둘다 점점 더 타당성 있는 요소가 된다. 숫자 8,400 은, 7 x 12 x 100 과 대등하고, 그런즉 숫자 7 과 숫자 23 이, 8,400 일, 즉 23 년의 큰 환난기로 장식되는 것을 허락한다.

*교회시대의 끝, 그리고 그 이후, 공식과 가라지 라는 제목의 책을 무료로 신청해 볼수 있다. 이 책에는 교회시대의 종말에 관한 성경의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이 실려있다.

8,400 일의 환난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음을 우리가 발견하였다. 요한계시록 8 장 1 절로부터 우리가 배운대로, 처음 부분 동안, 사실상 세상 어느 곳에서도 구원받은 자가 없었다. 그 첫부분은 다니엘 8 장 13 절과 14 절의 2,300 주야와 동일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였다.

큰 환난의 둘째 부분 동안,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전세계에서 구원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였다(요한계시록 7:9-14).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 밖에서 일어나기로 되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남게 된다.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가 되어야 할 의례적인 초막절이 가장 마지막 날로 확인되는 것을 역시 우리가 발견하였다. 마지막 날이 세상의 종말로 확인되므로, 초막절에 대한 성경의 시간을 가능하는 것 역시 세상의 종말로 확인되어야 한다.

한가지 더 어려운 정보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13 장 24 절로부터 26 절까지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읽는 것이다.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직 우리는 이 기간에 대하여 좀 더 배워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발견한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건들의 전개과정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으로 결론 내릴수 있다.

1. A.D.33 에 시작한 교회시대가, 이스라엘이 세상의 국가 가운데 생명력있는 하나의 국가로 다시 이루어졌던 1948 년이 지나서 얼마후에 종결될 것이다.

2. 교회시대가 오순절에 시작했으므로, 그리고 그것이, 첫수확의 첫열매들을 들여오는 오순절과 긴밀하게 동일시 되므로, 공식적인 교회시대의 종말은, 어떤 해가 되었든, **교회시대가** 끝나기로 되어있는 그 해의 오순절 바로 전날이 되어야 한다.

3. 큰 환난의 마지막 부분이 큰 무리가 구원받는 시간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그 마지막 부분은 회년이었던 1994 년에 시작되어야 한다.

4. 큰 환난의 첫부분이, 사실상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야 했던, 다니엘 8 장의 2,300 일과 동일한 것이어야 하므로, 교회시대의 종말과 일치해야 하는 큰 환난의 시작은, 1988 년의 어느 시기에 발생했어야 한다(2,300 일은 6 년보다 약간 많은 기간에 해당한다).

5. 교회시대의 공식적인 종말이 1988 년 오순절 전날이어야 하므로, 우리는 그 오순절이 5 월 22 일이었음을 발견한다. 그러므로, 교회시대의 종말과 큰 환난의 시작은 1988 년 5 월 21 에 일어났어야 한다.

6. 아무도 사실상 구원을 받지 못했던 환난의 첫부분이 2,300 일이어야 했으므로, 1988 년 5 월 21 일 이후로 2,300 일을 계수하면 1994 년 9 월 7 일에 도달한다. 이 날이 그러므로, 큰 환난의 8,400 일(완전한 23 년)중에서 나머지 6,100 일 동안 구원을 받기로 되어있는 사람들의 커다란 추수가 시작되는 날이어야 한다.

7. 1994 년 9 월 7 일 이후 6,100 일이 경과한 끝이, 2011 년 5 월 21 일로서, 이 때가 큰 환난이 종결되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8. 2011 년에, 초막절(성경절)의 마지막 날은 언제가 되는가? 우리는 그것이 2011 년 10 월 21 일에 발생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우리의 달력으로 153 일로 구성된 5 개월의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 마가복음 13 장 24 절로부터 27 절까지에 기록된 사건들이 일어나야 한다. 참으로, 즉시 우리는 아마도 세상의 종말로 이끌어주는 사건들의 전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달했다는 용기를 얻게된다. 요한계시록 9 장에서, 5 개월의 기간이, 해가 어두워지고 심판이 시작된 시간과 일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5 월 21 로부터 10 월 21 일까지 153 일간은 정확히 5 개월이다.

제 5 장.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정확한 것인가?

그러나 이제 커다란 질문이 제기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의 흐름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은 너무도 무서운 주제이고, 만일 이것이 참으로 종말의 시간표에 대한 확실한 이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더 많은 확신을 주시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중심체가 되는 또다른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기록한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택한자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증명으로써 부활하셨음을 완전하게 확신할 수 없다면, 그 때에는, 구원계획 전체에 관련하여 의문이 남게 된다.

이러한 확신을 얻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어보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8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사실이 언쟁에서 초월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분명히 가르친다. 누구든지 이 경외로운 사실을 집요하게 부인하는 자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안목안에서만 지혜로운 자이며, 그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놀라운게도, 세상의 역사를 마감하는 사건들의 시간을 맞추는 일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지구의 역사를 마감하는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 일을 오히려 이해하였다는 확신을 주는 수많은 증명들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동안, 우리는 세상의 사건을 마감하는 시간을 맞추는 일종의 시험적인 윤곽을 세워보았다. 그것들이 너무도 중요한 까닭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것들을 종합해 볼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날짜들에 도달하였다.

1.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A.D.33의 첫째 달의 14일 췌에 있었다. 이것은 성경의 달력으로는 A.D.33, 니산 14일이었고, 우리의 현대 달력으로는 A.D.33, 4월 1일이었다.
2. 교회시대는 공식적으로 그 후에 이어서 온 오순절에 시작되었고, 그것은 A.D.33 5월 22일이었다.
3. 교회시대는 1988년 오순절 바로 전날에 끝났고, 8,400일의 큰 환난이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1988년 5월 21일이었다.
4. 큰 환난의 처음 2,300일은 1988년 5월 21일에 시작되었고, 1994년 9월 7일에 끝났다.
5. 큰 환난의 둘째 부분은 6,100일 (8,400 - 2,300 = 6,100)으로 구성되어있고, 1994년 9월 7일에 시작되었으며, 2011년 5월 21일에 끝난다.
6. 지구의 역사상 마지막 다섯달은 2011년 오월 21일에 시작되며, 2011년 10월 21일에 끝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의 종말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시간의 연결점에 대한 기본적인 윤곽을 세워보았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시간적 정보에 도달하도록 해주는 성경의 정보들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러한 시간의 윤곽 안에 세워진 날짜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다른 정보들에 비추어서 조사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수많은 부수적인 정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것이 절대적으로 정확한 시간표임을 한치도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시간적 양식이 어떻게 정밀하게 서로 맞추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을 한점 한점씩 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A.D.33 5월 22일에 시작하여 1988년 5월 21일에 끝나게 된 교회시대의 기간과 함께 시작할 것이다. 교회시대의 시기는 A.D.33년 5월 22일과 1988년 5월 21일 둘다를 포함하였다. 이것은 즉, 그것이 1,955년(1988 - 33 =

1,955)의 그 가장 마지막 날까지를 포함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바로 그 날까지”란 문구는 하나님의 과거의 행위에 대한 정확성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430년간 “그날”까지 있었다(출애굽기 12:40-41).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바로 그날부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도착했던 그 날까지 40년간이었다는 성경의 정보로부터 보여진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1,955년의 유일한 성격을 보게 될 것이다. 비유란 천국의 의미를 지닌 세상의 이야기임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단어나 숫자들(이것 역시 단어임)이, 세상적이거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역시 그것이 영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런즉, 숫자 3은 자주 영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강조한다. 이것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숫자의 사용을 통하여 자주 강조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세울수 있는 적절한 계기가 될 것이다.

- 2 -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은 자들
- 3 - 하나님의 목적
- 4 -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의미하시는 것에 대한 가장 멀리 미치는 시간이나 거리
- 5 - 속죄, 심판과 구원을 모두 강조한다
- 7 -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충족시킴
- 10 - 무엇이든 의미하는 것에 대한 완성
- 11 - 그리스도의 초림, 창조후 11,000년
- 12 - 무엇이든 의미하는 것에 대한 충만함
- 13 - 세상의 종말,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창조후 정확히 13,000년 후에 시작되었다
- 17 - 천국
- 23 - 하나님의 진노 혹은 심판
- 37 - 하나님의 진노 혹은 심판
- 40 - 시험
- 43 - 하나님의 진노 혹은 심판

게다가, 만일 더 큰 숫자가 적은 숫자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면, 그 각각의 숫자들이 영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큰 숫자 안에 담겨진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우리는 더 큰 숫자가 그것이 발견된 문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적인 정보를 마련해준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다.

이 원칙은 교회시대의 1,955년 안에서 극적으로 묘사되어있다. 숫자 1,955는 $5 \times 17 \times 23$ 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세가지 숫자들 모두가 교회시대의 영적인 성격과 강한 영적 동일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읽는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구절들은, 복음이 구원과 사망 둘 다 모두를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구원은 천국(17)과 동일한 것이다. 사망은 하나님의 진노(23)와 동일한 것이다. 숫자 5는 영적으로 속죄와 동일시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그 동안 복음이 세상으로 전해져야 했던 교회시대의 1,955년은, 복음의 본질 그리고 성격과 분명하게 동일시 된다: $1,955 = 5 \times 17 \times 23$. 그러므로, 교회시대의 1,955년은 속죄에 기초되었고, 그 속죄는 천국(17)과 하나님의 진노(23)를

가져온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그것은 전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전에 설명했던 그 원칙에 완벽하게 부합된다.

세상이 창조된 후 13,000년째의 해

1988년에 관련하여 또다른 말이 언급되어야 한다. 1988년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지 13,000년 째가 되는 것은 우연한 일인가? 세상이 11,013 B.C.에 창조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배웠다. 만일 우리가 11,013에 1988을 더하고 1을 제하면(구약의 달력에서 신약의 달력으로 가는 도중 0이 되는 해가 없으므로), 그 총합은 13,000이 된다. 교회시대의 종말은 정확히 세상의 13,000년 째의 해로 확인되며,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미리 정해놓으신 계획을 따르고 계심을 지적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 정보는 우리가, 창조의 해(11,013 B.C.)로부터 노아의 홍수(4990 B.C.)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전체에 임하였고, 그것이 정확히 6,000에 23년을 더한 것이 됨을 깨달을 때에 특별히 흥미로워진다. 숫자 23은 자주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함을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4990 B.C.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신 A.D.33까지, 정확히 5,000에, 그 해를 포함하여 23년을 더한 것이 된다. 이제 우리는 2011년이 마지막 해이며, 11,013 B.C.로부터 A.D.2011까지는, 13,000에 23년을 더한 것이 된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가 될 수 있는가? 아주 큰 경향성으로 보아, 큰 환난이 정확히 8,400일의 기간이 될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을 마지막 해로 시험적인 결론을 내린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8,400일은, 정확히 23년을 가득 채운 기간이다. 그리고 23에 1988을 더하면 세상의 종말이 되는 2011이 된다.

1988년 5월 21일에 시작된 마지막 23년은, 큰 환난기간으로서, 말세에 있을 전세계적인 심판 과정의 시작이다. 교회시대가 끝이 난 1988년 5월 21일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말한 성경의 예언에 엄격히 따라서, 큰 환난의 심판이 시작되었던 것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88년과 1988년 5월 21일이 모두,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전개하는 것에 괄목할 정도로 잘 들어맞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을 펼치는 다음의 중요한 연결점은 1994년이였다. 1994년 9월 7일이, 1988년 5월 21일 이후 정확히 2,300일이었음을 우리가 배웠다. 우리가 이미, 1994년이 회년이었음을 주목해 보았던 것을 기억하라. 즉, 그 해는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에 초점을 둔 해이다. 이제 우리는, 1994년 9월 7일이 성경의 의례적인 달력의 일곱번째 달의 첫째 날(티슈리 1)이었음을 배웠다.

티슈리 첫날은 의례적인 절기로서, “(나팔을 불어)회년을 기념하는 날” (레위기 23:24), 그리고 “(나팔을 불날)회년의 날” (민수기 29:1)로도 불렸다.* 그 날은 A.D.29, 예수님께서 회년으로서 혹은 메시아로서 그분의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셨을 때 일어났던 그와 똑같은 성경의 절기였다. 그 날에 그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요한복음 1:29)으로 선포되었다. A.D. 29, 우리의 현대 달력에 따르면, 그 날은 9월 26이었다. 그리고 성경의 달력에 따르면, 그 날이 티슈리 첫날로서, 회년의 절기였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1994년 9월 7일은 회년의 절기가 되는 날이다.

“회년”이란 단어는 모든 면에서 세상에 자유를 선포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레위기 25:10). 그런 이유에서, “테루아”가 속죄의 날에 관련하여 “회년”으로 적절하게 번역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회년의 가장 본질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가 속죄의 본질이 되신다. 그러므로, 그가 A.D. 29 9월 26일에 세례 요한에 의하여 소개되었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라고 읽듯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복음과 함께 오신 “회년”이 되심을 세상에 영광스럽게 선포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회년이었던 1994년 9월 7일에, 복음이 다시금 세상 전체에 선포되어야 했다. 그리고 A.D.29년 9월 26일과 1994년 9월 7일 둘다, 성경의 의례적인 날짜는 일곱번째 달의 첫째 날이었다. 마치 “**테루아**”가 레위기 25장 9절에서 속죄일과 관련하여 영문 번역에서 “회년”으로 정확히 번역된 것과 같이, 레위기 23장 2절과 민수기 29장 1절이 “**테루아**를 기념하는 날”로 말하지만, 그것이 “회년을 기념하는 날”, 그리고 “회년의 날”로 번역되어야 함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이 “나팔 절기”로 부르는 그 절기는 “회년의 절기”로 불려야 한다.

1994년 9월 7일에, 8,400일의 환난기의 처음 2,300일이 끝났음을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하라. 1994년 9월 7일에,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온세상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그 날이 바로, 세상의 역사상 두번째 해로, 성령이 강림하였던 날이었다. 만일 그 날이 1994년 9월 7일이 아닌 다른 날이었다면, “**장차 올 그림자**” (골로새서 2:16-17)였던 티슈리 첫날의 월삭과 일치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영광스런 사건, 즉 1994년 9월 7일의 의례적인 날(티슈리 1, 1994)은, 예시되었고, 사실상 구원의 마지막 6,100일의 기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4년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걸쳐서 마지막 6,100일의 커다란 구원을 시작하셨고, 온 세상에 걸친 교회들에게는 그 해가 또한 공포의 해가 되었다. 성령이 교회 밖에서 쏟아졌는데, 즉, 세상의 어느 곳에서나, 완전히 교회와는 개별적으로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교회 안에서는, 심판과정이 계속될 것이다. 큰 환난기가 시작될 때에 모든 교회 안에 심어진 사단이 계속해서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혹을 저의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데살로니가후서 2:11)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형벌을 위하여, 교회안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실 것이다.

교회들에게는 그것이 거대한 공포 이야기가 된다. 그들 자신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기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준다. 다시는 결코 지역 교회의 권위 아래서는 구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본 학습에서 일찍이, 그들의 무섭고 슬픈 상태가,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역사적인 큰 환난기의 시간적 양식을 우리가 조사해 봄으로써 이해되었다. 1879 B.C.에, 야곱이 그 땅의 커다란 기근으로 인하여 큰 환난을 경험하기 시작했다(사도행전 7:11). 이년 후, 1877 B.C.에, 야곱은 그의 전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가서 살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215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땅을 떠나야 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도록 명령을 받은 것과 같다. 마치 A.D.1988년에,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사단의 지배아래 넘겨주신 것처럼, 1877 B.C.에 약속의 땅 가나안 역시 세상의 사악한 자들에게 그곳을 지배하도록 주어졌다. 그것은 참으로 큰 환난의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교회들의 환난과 연결시키시는데, 그 때 1994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완전히 끝을 내셨고, 심판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셨음이 분명하다. 또다시, 요셉의 시대에 있었던 환난을 현재의 큰 환난의 시기에 연결시켜주는 숫자들을 조사해보면, 이렇게 서로 멀리 분리되어 일어난 사건들의 영적인 성격에 대한 더 많은 강조를 발견한다. 우리가 1877에 1994를 더하고 1을 제하면, 이러한 비극의 사건들 사이에 있는 숫자로서 3,870이란 숫자를 얻게된다. 숫자 3,870은, $3 \times 1,290$, 혹은 $10 \times 3 \times 3 \times 43$ 으로 나누어진다. 숫자 43은 보통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두 사건들은 이러한 헛수로 연결되고, 그것은 심판(43)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완전한(10) 목적(3×3)을 의미하는 것이다. 숫자 3이 중복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심판을 필히 가져오실 것임을 강조한다(창세기 41:32).

우리가 본 학습에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에 임한 이 두려운 심판의 시기를,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경험하였던 거대한 환난에 연결시키셨음을 배웠다. 그 환난은, 609 B.C.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시작하여, 바벨론 왕이 539 B.C.에 죽임을 당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해, 587 B.C.는 특별히 공포의 해였다. 609 B.C.에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은 점점 더, 교회들을 다스리는 사단을 상징했던 이방 왕들에게 정복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587 B.C.에, 예루살렘이 성전과 함께 완전히 파괴되었다. 바벨론의 사악한 왕 느부갓네살은 성경의 사단을 상징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땅의 완전한 지배자가 되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 슬프고 무서운 사건은 또한 오늘날 큰 환난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다. 그것은 또한, 현재 큰 환난기의 1994년과, 그들 사건 사이에 있는 헛수를 합한 수에 의하여 연결된다. 예루살렘은 587 B.C.에 멸망당했다. 만일 우리가 587에 1994를 더하고 1을 제하면, 그 합은 2,580이고, 이것은 $2 \times 1,290$ 혹은 $10 \times 3 \times 2 \times 43$ 으로 나누어진다. 숫자 2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대표하므로, 2,580년의 시기가 가진 영적인 메시지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사명을 부여받았던 교회들이, 심판아래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10) 목적(3)이었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그리고 아주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의 세가지 환난들을, 다니엘 12장 11절의 구절로써 연결시키신다. 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 이백 구십일을 지낼 것이요

가끔 성경이 하루를 사용하여 한 해를 묘사하므로(에스겔 4:6), 우리가 이것을 1,290년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1877 B.C. 야곱의 환난과 587 B.C. 이스라엘의 환난 사이에 1,290년의 시간이 있다. 마찬가지로, 1877 B.C. 야곱의 환난과 1994년의 교회의 환난 사이에, $3 \times 1,290$ 년의 시간이 놓여있다. 마찬가지로, 587 B.C. 이스라엘의 환난과 1994년 오늘날의 환난 사이에 $2 \times 1,290$ 년의 시간이 있다.

이 사건들이 얼마나 서로 긴밀하게 맞추어지는지 주목해보기 바란다. 그것은 참으로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전개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처음 가졌던 이해가 점점 더 성경의 언어에 의하여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다음 우리가 신중히 조사해보아야 할 연결점은, 2011년 5월 21일인데, 그 날이 8,400일 혹은 완전히 채워진 23년의 큰 환난기의 마지막 날이 된다. 그 날에 이어서 마지막 153일(5 개월)의 기간이 따라오며, 그 기간은 2011년 10월 21일에 끝날 것임을 우리가 배웠던 것을 기억하라. 5월 21일과 10월 21일이 둘다, 세상이 존재하는 마지막 해가 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2011년에 일어날 것이므로, 우리는 그 해를 아주 신중하게 조사해보아야 한다.

하루가 천년과 같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우리의 관심을 그 해에 집중시키신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세상 전체를 멸망시킨 홍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도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일어날 무서운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우리가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읽는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두 구절에 이어서 즉시,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가장 호기심을 자아내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셨다.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즉, 택함을 받은 모든 이들이 잊지 말기를 바라시는 한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가 의미하시는 그 “한가지”란 무엇일까? 그것은 틀림없이 최고로 중요한 것일 테고, 그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 이 한가지는 전적으로 시간과 관련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신다. 즉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가지에 대하여 두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을 본다. 즉, 먼저 그가 “하루가 천년같다”고 선언하신다. 그리고 그가 반복해서 이 정보를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모든 믿는자들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더욱더 크게 강조하시는 것이다.

바로가 꿈에, 일곱마리의 살찐 소가 마른 소가 되고, 그 다음 충실한 일곱이삭이 마른 이삭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1장 32절에서 다음에 우리가 읽는 바와 같은 원칙을 세우셨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라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법은, 그가 말씀을 두번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으로 보장된 것이며,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말씀을 두번 반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극도로 중요한 것이며, 절대적으로 금세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나님이 두가지의 전세계적인 심판인, 노아의 시대의 심판과 오늘날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문맥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창세기 7장에서 주어진 홍수 사건을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건설하도록 명하신 그 거대한 배인 방주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창세기 7장 1절로부터 4절까지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읽는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 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 수 둘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 수 일곱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칠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영적으로 말하면, 그 홍수의 물은 노아 시대의 온 세상에 있던 사악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표하는 것이었다. 방주는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안전함을 나타내었고, 그러므로, 우리 구세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가 홀로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가축들은, 창조 전체를 대표하며, 썩어야 할 사슬로부터 해방되기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이다(로마서 8:19-23).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존재케 하실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전체에서 온 인류가, 오직 홀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안전함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칠일간의 여유가 있다고 효과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가 하루가 천년 같음을 절대적으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지 않으셨는가? 칠일을 7,000년으로 대신하여 보자. 그러므로, 효과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 살게될 온 인류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안전함 안으로 들어가기 까지 7,000년이란 세월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다.

노아시대의 홍수 이후 정확히 7,000년이 경과하면 무슨 해에 도달할 것인가? 여러분은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오래전에, 우리는, 그 홍수가 4990 B.C.에 일어났음을 배웠고, 그후 7,000년이 흐르면 우리가 2011년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가 구약의 햇수에 신약의 햇수를 더하여 1년을 제하는 것은, 영이란 해가 없기 때문이다.

$$4990 + 2011 - 1 = 7,000\text{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모든 사람들이, 2011년이 세상의 종말이 있을 해임을 절대적으로 알기를 기대하신다고 틀림없이 선언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해하여야 한다.

마지막 다섯달

그러나 더 많은 말씀이 이해되어야 한다. 8,400일의 큰 환난의 기간에 이어서 즉시 오는 오개월의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배웠다.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011년 5월 21일에 시작되는 마지막 5개월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 뿐만 아니라 그분의 구원계획에도 역시 아주 강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오개월의 첫째 날, 즉 2011년 5월 21일에, 모든 믿는자들이 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그날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옥의 심판이 시작될 날이 됨을 발견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 성경은, 지옥이 이 땅에서 시작할 때에 대하여 말한다. 그것은 다섯달의 시간을 둘러싸고 있다(5절과 10절). 그 장은 “**무저갱**”(지옥의 동의어)이 열리고 큰 풀무의 연기같은 연기가 올라온다는 말로 시작된다. 그 때에, 자기가 성경 교사였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믿지만, 사실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림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성경의 잘못된 이해를 가르치고자 애쓰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황충(3절)으로 상징되었고, 아바돈(멸망)과 아볼루온(멸하는자)(11절)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며, 그 때 지구에 살고 있는 자들을 해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가진 자들은 해칠 수 없다.

지옥의 본질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으로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이 아바돈과 아볼루온(요한계시록 9:11)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그 이름들은 지옥의 본질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들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지옥의 다섯달 동안 지옥에 있을 것인즉,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되는 것이 보장되어있다. 그들은 결코 다시는 생명을 되찾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주 전체와 더불어, 소멸되어버릴 것이다. 그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참 믿는자들을 해치지 못할 것임은, 참 믿는자들은 결코 지옥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 믿는자들은 휴거될 것이고(하늘로 들려 올라감), 이 땅위에서의 마지막 다섯달의 지옥이 시작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 문맥에서, 풀, 푸른 것, 수목은 참 믿는자들을 상징한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지옥의 시간이 되는 마지막 재앙을 강조하신다. 그리고 1절에서 그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리로다**” 라고 선포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우리에게 동시에,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유리 바다**”에서 안전하게 거한다고 확신시켜준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을 읽어본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유리바다”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는 말씀에 의하여 지적되듯이, 천국에 있는 것이다. 그 다음 6절에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라고 선포한다.

참 믿는자들은 이 마지막 다섯달의 기간중 첫째 날에 휴거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지막 그 기간의 공포를 완전히 피할수 있다. 그런 반면, 이 다섯달의 기간은, 휴거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의 이야기가 될 것이며, 휴거된 자들에게는 그것이 커다란 기쁨과 황홀한 순간이 될 것이다.

이 다섯달의 기간은 5월 21일로부터 10월 21일까지 정확히 153일을 둘러싸고 있다. 숫자 153은 영적으로 3 x 3 x 17로 나누어지며, 이것은 우리가 153마리의 고기들을 조사해보았을 때, 그랬던 것과 같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천국으로(17)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3)이었던 사람들과 동일시된다. 숫자 3은 두번 반복되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더 많은 정보들

2011년 오월 21일이, 휴거의 날이라는 더 진전된 증거으로써,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성경의 의례적인 달력에 따르면, 2011년 5월 21일이 둘 째달의 17번째 날이다. 정확히 7,000년 전에, 노아에게 사용된 그

달력에 따라 둘째달 17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우리가 창세기 7장 1절과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읽는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지금부터 칠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7장 10절과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읽는다.

칠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육백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리고 우리가 13절과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읽는다.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시대의 달력은 후에 나온 성경의 달력과 약간 다른 면이 있었는데, 나중에 나온 성경의 달력이 달의 위상을 따라서 한 달에 29 1/2 일이 있었던 반면에, 그것은 한 달에 30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둘째달의 17일째날에 방주의 문을 닫는 일을, 2011년 5월 21일에 문을 닫는 것과 연결시키시는데, 이날은 성경의 의례적인 달력에 따르면 둘째달의 17일째 되는 날이 된다. 이것은 참 믿는자들을, 방주의 바깥쪽에서 멸망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로 부터 영원히 분리시킨 것이다. 이것은 참 믿는자들이 휴거되는 그 날, 뒤에 남은 자들에게는 결코 다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시해주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치 노아시대의 전세계적인 멸망과 오늘날 전세계적인 멸망이 일어나는 두번의 시기 동안, 구원에 대한 더이상의 가능성에 문이 닫히는 바로 그 시점부터 바로 그날까지 정확히 7,000년이란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

속죄로부터 휴거까지: 722,500 일

휴거의 날로서 2011년 5월 21일의 정확성을 좀 더 보여주는 중요한 시간적 정보와 또다른 흥미로운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33 A.D. 4월 1일에 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자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셨다. 그 후 정확히 722,500일(그날을 포함하여)이 지나서, 휴거가 발생할 것이다(2011, 5월 21일). 이 숫자는 다음과 같이 아주 중요한 숫자들로 나누어진다.

$$(5 \times 10 \times 17) \times (5 \times 10 \times 17) = 722,500$$

우리는 이런 숫자들이 지닌 영적인 의미를 알고 있다. 속죄의 사역(5)은,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안전하게 천국(17)에 갈 때에 완성된다(10). 이 훌륭한 사실은, $10 \times 5 \times 17$ 의 세가지 숫자들의 반복에 의하여 중복되었다. 이런 강조는, 창세기 4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라고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 들림을 받아 영원히 예수님과 천국으로 올려져야 할 자들의 죄값을 만족하게 치르셨기 때문에 천국이 가능하도록 만드신(속죄) 시간에, 2011년 5월 21일의 휴거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결시키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본 학습에서 지금 이시간, 우리가 잠시 멈추어 바로 앞에서 배운 그 문단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유월절날 즉, A.D.33 금요일, 성경의 의례적인 달력의 첫째달의 14일째 되는 날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 우리는 이 날이 또한 우리의 현대 달력에 의하면 A.D.33년 4월 1일이었음을 확신한다. 그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신 날이었다. 그가 그들의 죄값을 지불했은즉, 그들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다스리게 될 보장을 받은 것이다.

성경에서 주어진 많은 정보들로부터, 2011년 5월 21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을 때에 그가 받으신 형벌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림을 받는 그들의 구원의 완성을 깨닫게 될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A.D.33년 4월 1일과 2011년 5월 21일이, 영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역시, 거의 2,000년 간격을 가진 이 두가지 날짜들이, 또한 그 큰 숫자의 영적인 중요성 뿐만이 아니라 역시 실제적인 숫자의 날들에 의하여 극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722,500이란 숫자를 다시 한번 보자. 그것이 10, 5, 그리고 17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숫자들에 의하여 정확히 두쪽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믿기 힘든일이 아닌가? 오직, 정확한 모든 물리적 법칙으로 이 위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토록 정밀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적 시간의 흐름을 만드실 수 있었다. 보라! 이러한 시간적

관계성이 우연일 가능성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 대답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 어느 것도 우연일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 많은 증명들

우리가 계속해서 종말의 시간을 가늠하는 아주 정확한 지식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다른 증명들을 배우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달력에서 둘째 달 17번째 날을, 휴거가 일어나게 될 문을 닫으시는 날로 정하시므로써, 바로 이날, 2011년 5월 21일을 확고하게 고정시키신다. 중요하게도, 숫자 17은 휴거의 사실로 완벽하게 연결되는데, 그 이유는, 영적으로 숫자 17이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숫자 2(둘째 달)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 확인된다. 그들이 둘째달 17번째 날에 휴거될 것이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가?

우리는 또한, 지구가 존재하는 마지막 날, 2011년 시월 21일이, 성경의 달력의 일곱번째 달의 23번째 날임을 배웠다. 숫자 23은 보통,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숫자 7 (일곱번째 달)은, 하나님이 목적에 대한 완벽한 충족을 의미한다. 이것이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형벌의 완성이, 일곱번째 달 숫자 23으로 장식된 날에 일어나고, 그 숫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완전히 동일시 되어서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진노를 강조한다는 사실이 우연적인 것일 수 있는가?

세상의 종말에 대한 시간적 흐름의 정확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기준으로 할 때, 마지막 다섯달의 이 기간을 우리가 조사해보면 좀더 강조된다. 하나님께서, 택한자의 죄값을 지불하실 때 그가 예수님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 그것으로써, 택함받지 못한 자의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이 아직 발생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이 두가지 형벌은 십자가(A.D.33)를 종말(A.D.2011)에서 분리시키는 1,978년으로 서로 연결된다.

$$2011 - 33 = 1,978$$

$$1978 = 2 \times 23 \times 43$$

숫자 2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을 상징한다.

숫자 23은 진노를 상징한다.

숫자 43은 심판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숫자 1,978은,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받았던 자들(2),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23과 43)의 대상이 되는 자들에게 심판이 떨어질 것임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

큰 무리가 구원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 과정은 계속된다

우리가 큰 환난, 휴거, 그리고 지구가 존재하는 마지막 날에 대한 날짜들을 신중하게 조사해보는 가운데, 또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우리는, 8,400일의 큰 환난기 중, 마지막 6,100일 동안, 교회 밖에 있을 참 믿는자들이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오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것임을 배웠다. 그와 동시에, 모든 교회회원들은,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쏟아지는 가운데, 마지막 다섯달의 기간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마지막 153일 동안, 그 이전의 6,100일 동안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전에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안전하게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6,100일들에, 마지막 153일이 더해지면, 6,253일이 된다. 숫자 6,253은 숫자 13 x 13 x 37로 나누어진다.

숫자 13은 세상의 종말이다

숫자 37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노아가 정확히 370일 동안 방주에 있었음을 기억하라. 또 역시, 산헤립 아래 지배를 받던 185,000명의 앗수르 군대가 하루밤에 하나님에 의하여 멸망되었고(열왕기하 19:35), 185,000 = 1,000 x 5 x 37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 37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멸망으로 확인되는지를 볼 수 있다.

숫자 6,253 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 동안 구원을 경험하게 될 큰 무리가 있을 것과, 하나님의 심판과정이 세상의 종말에 완성될 것임을 확신시켜주신다. 다시한번, 숫자 13을 중복시킨 점을 주목하기 바란다.

본 학습에서 일찍이, 우리는 오직 성경의 정보로부터 다소 시험적인 방법으로, 역사의 종말에 대한 시간을 마지막으로 가늠해보는 일을 세워보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수적인 성경의 정보를 계속 적용시킴으로써, 우리는, 그 시간적 흐름이 극도로 정확했음을 발견하였다. 증명에 이어 또다른 증명이 강조되어왔다. 만일 현재 세워진 시간적 흐름이 그 어느 날짜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다면, 많은 증명들이 무효화 되어버릴 것이다. 분명히 만일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날짜들중 어느 것이라도 부정확한 것이 있다면, 그 때에는, 수많은 증명들이 더이상 인식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휴거가 2011년 5월 21일에 일어날 것과,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날은 2011년 10월 21일 될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단지 지성적이거나 혹은 학구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들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각각의 사람들(거의 칠십억의 사람들)에게 아주 개인적인 방법으로 적용되는 진리들이다. 이토록 무서운 심판의 날을 피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제 6 장.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가?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의 도적 같이 오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한다(베드로후서 3:10; 데살로니가전서 5:2). 우리는, 이것이 교회시대 전반에 걸쳐서 있어온 이해임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 학도들과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에 관심을 두지 않아야 했다. 그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사역에 초점을 두어야 했다(사도행전 1:6-8).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종말의 시간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과, 참 믿는자들은 역사적 시간의 흐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임을 배웠다(잠언서 8:5-6; 데살로니가전서 5:3-5; 요한계시록 3:3).

우리는 그 경외로운 역사적 시간에 와있고,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종말의 시기에 대한 정확한 해, 달, 그리고 날을 커다란 성경의 정확성을 가지고 결정내릴 수 있었다.

우리가 종말에 아주 가까이 와있는 이유로, 그 일에 큰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나에게도 희망이 있는가?** 참으로 오늘날 살고 있는 자에게는 그 누구에게나 큰 희망이 있다. 이것은, 역사상 이 시기에, 아무도 셀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요한계시록 7:9-1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잠깐 논의해 보아야 한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선언하신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구절이 말하는 대로 복음을 믿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음을 깨닫는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적으로 진실이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자, 성경으로서,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자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능한한 그것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모든 각 사람은 본질적으로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포함한 어느정도의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고(로마서 2:14-15), 하나님께서 그에게 양심을 주시어 그가 어느정도 도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가 몸과 영혼 안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자신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이 불가능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어느정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람들은 각각, 어느 정도 회개하거나 자신의 죄에서 돌아설 수 있다. 그러므로, 그가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수 있다. 본질상, 그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은, 우리의 첫부모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원칙적으로 온 인류가 죄를 지은 것이고, 이는, 우리가 모두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기 때문이다(고린도전서 15:22).

그러나, 그가 절대적으로 구원을, 즉 그의 몸이나 영혼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는, 하나님의 법이 죄를 인하여 요구하는 값은, 죄인이 수치스런 죽음을 당함으로써 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복음이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이 수치스런 죽음의 선고를 받은 각각의 사람들은, 결코 다시는 살아나지 않을 것이며, 훌륭한 기업이 되는 영생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각자 우리를 대신하여 이 형벌을 대신 담당할 수 있는 대속자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는(죄를 그치고 성경에 순종하는 것) 이 계명은, 약 2,000년 전에 주어졌다. 그 말씀에서 **“때가 찼다”** 고 선포한다. 그 당시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가 구원하시려고 하신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요구된 형벌의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오셨다.

오늘날, **“때가 찼다”** 라는 문구가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좀 더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완성되는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오직 아주 짧은 시간만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을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학습해보면, 세상에는 근본적으로, 세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그들은 다음과 같다.

1. 전 인생을 사는 동안 한번도 성경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2.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들어본 적은 있으나, 성경을 비롯거나 조롱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선견적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
3.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전적으로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겸손하게 그리고 열심히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세상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혹은 성경의 말씀을 한번도 읽어본 적이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17)고 했으므로, 이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삶을 사는 동안 어느 시기에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말씀을 들었으나 비웃는 사람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후로(마가복음 1:15), 세상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 그런 이유로, 약 2,000년 전에, 참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마태복음 28:19-20).

슬프게도, 성경을 어떤 식으로든 알게된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거나, 그들이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성경의 규칙보다는 그들 자신의 규칙들을 따르는 것이었다. 성경을 조소하는 자들은 성경에 오류와 모순들이 있다고 믿은 것으로서, 그런즉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욕구나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았다. 자기 자신들의 해석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자들, 혹은 성경을 신뢰하기 보다는 그들의 교회나 교단을 궁극적인 권위로 믿는 자들 역시, 성경에 진실치 못한 교리들에 복종하게 된 것이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어느정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희망을 지적해서 설명해준다. 예를 들면, 역사적인 신경으로서, 도르트^{*}의 케논에서 유래된 칼비니즘의 다섯개 조항들을 가르치는 교회들의 회원들에게는 이것이 진실이 된다.* 첫번째 조항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믿어야 할 것으로서,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회에 다니는 회원들이 품위있고, 도덕적인 삶을 살며 그들의 교회의 규칙들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타락했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그들의 신경에서, 완전한 타락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가르쳐왔다. 그러므로, 그들의 경건한 삶의 모습과 그들의 교회에 대한 충실함은, 그들이 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이 교회의 충실한 회원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들이 완전하게 타락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틀림없음을 분명히 증명한다는 것이다. 구원의 증거는, 성경 전체에 순종하기 원하는 강한 욕구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그들이 신학적인 결론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예가 주목되어야 한다. 다른 많은 교회에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과 물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열쇠라고 가르친다. 이러한 교회들 안에서는, 교회의 규칙에 충실하고 품위있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이러한 모든 행위들이, 그들의 구원에 대한 충분한 확신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안에서 주어진 올바른 구원계획 보다는 신학자들이 만들어 낸 구원계획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증거는, 성경에 주어진 모든 것에 신실하기 원하는 강하고 끊임없는 욕구이다.

*도르트의 케논, 혹은 신경들은, 약 400년 전에 살았던 탁월한 신학자인 요한 칼빈의 신학적 결론들을 밀접하게 따르는 보수적인 장로교회들과 개혁교회들이 만드는 교리적 결론들이다.

결과적으로, 성경인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가르침들을 주의깊게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오늘날의 교회들은, 회중 안에서 완전한 친교속에 있는, 이러한 품위있고 도덕적인 사람들로 가득차 있다. 이러한 딱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또한 그들의 교회가 진실로 성경에 신실한지를 판가름하기 위하여 그들의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주의깊게 검토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경고가 그들을 놀라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임은, 사실상 교회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고 믿고, 그리스도께서 밤의 도적과 같이 오실 것이라고 믿는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 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갑작스런 멸망이란 오직 거의 여기에 와있는 심판의 날만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임해야 할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 딱한 사람들이 여전히 처해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품위있고 도덕적인 사람들로써, 교회에 충실하고 아주 독실한 회원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교회가 가르치는 선견적이고 그릇된 교리들을 가지고 성경을 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 보다는, 교회의 잘못된 교리들을 듣고 그것에 복종하고자 한다. 그것을 깨닫지 못한채, 그들은 자주 성경을 읽고 마음 속에서, 그들 자신의 선견적인 생각들에 동의하고자 하여 성경의 진리들을 왜곡시킨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에 순종하기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성경을 듣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이런 종류의 행위에 대한 많은 참조들을 주고 있다. 그런 행위가, 그분의 말씀을 이런식으로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게될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가능성에 대한 용기나 희망을 전혀 주지 않는다. 사실상, 그들 자신은 그런 희망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거나 혹은 당신 자신이 해야 한다는 그들 자신의 구원계획에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때에 언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신기하고 두려운 사실은, 이런 종류의 영적인 반역을 하나님께서 인식하시고 보통 이런 사람들을 그들의 반항 속에 버려두신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마가복음 6 장 5 절과 6 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셔서 설교하신 것을 성경이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를 믿도록 하시는 권능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던 반면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전혀 없는 자들은 커다란 영적인 위협에 처해있음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신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상적인 반응은 아주 명백하게 선포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26 장 4 절로부터 6 절까지에 걸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읽는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중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내가 이 집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겸손히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자들

성경은 세번째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들은 성경을 듣고 열심히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복음이 되는 성경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들로서 하나님과 깊은 문제에 빠져있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을 주의깊게 들어야 함을 깨닫는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고, 비록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진다(누가복음 18:13). 그들은 성경에서 이해하게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면서, 그들의 순종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식으로도 구원에 공헌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보장이 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무리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 자비를 간청하며, 만일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들로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며(예레미야애가 3:26), 하나님의 법에 가능한한 순종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을 모두 배우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이 세번째 그룹의 사람들의 태도가 왜, 두번째 그룹의 사람들과 다른지를 알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로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일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마음 속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결과일수도 있고, 그들의 양심이 그들에게 죄에 대한 결과를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진리는, 왜 그들이 성경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가가 아니다. 중요한 진리는, 그들이 성경에 대하여 순종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어느 때에라도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그 행위가 그 사람의 구원에 결코 어떠한 공헌도 기여할 수 없다(에베소서 2:8-9). 구원은 오직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올 것이며, 그 선택하는 일은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런 이유로,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듣는 환경아래 있다면, 아거나 혹은 완전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신비스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택한자에게 그가 영적인 귀를 주신다. 우리가 마태복음 11 장 15 절에서 다음과 같이 읽는다.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비스런 구원의 행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두가지 상반되는 면으로부터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가, 복음을 실제로 듣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의 순종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욕구 안에서, 그들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환경(성경)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는 자들에게 수많은 경고를 주신다. 그들의 행위는 효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그런 행위들이 계속될 때에는, 완전한 수욕의 선고, 저주, 기업의 상실, 그리고 죽음으로 끝을 내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며, 이것들은 모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한 부분이 되는 것들이다.

이 시기는 자신감이나, 자만심, 혹은 자부심이나 심지어 자존심조차 용납될 수 없는 때이다. 이 때는 영적인 우월감이나 영적 교만함이 설 자리가 없는 시기이다. 이 때는, 우리 삶 위에 군림하는 성경의 완전한 권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장 신중하게 경청해야하는 때이다.

이 시기는, 각자가 자신의 죄로 인한 수치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함을 충분히 깨달아야 하는 시기이다. 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으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비를 겸손히 호소해야할 시기이다. 이 때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심을 우리 각자가 깨달아야 하는 시기이다. 믿기 어려운 그분의 자비는, 우리들중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있음직한 그 어느것 보다, 혹은 우리가 혹여 상상할 수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다.

오늘날, 그분의 위대하고 훌륭한 자비 안에서, 하나님께서 커다란 무리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중 누구라도 자비를 겸손히 호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만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아무도 셀수 없는 그 큰 무리 안에 포함된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커다란 질문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법 앞에 범한 수치스런 불순종과 반역함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위하여 겸손히 간청하고 있는가? 니스웨 사람들을 기억하라(요나서 3:6-10).

부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